

팬더믹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온 라인이라도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무한 감사하며 더욱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신실하심을 따르게 하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5월 23일 (토) 제 1778호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KAPC 제 44회 총회가 미주내 한인교단 사상 처음 화상으로 개최됐다.

“은혜와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 총회장 조문휘 목사, 부총회장 오세훈 목사

KAPC 제 44회 총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총회장 양수철 목사) 제44회 정기총회가 5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은혜와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요1:14)'라는 주제로 열려 총회장에 조문휘 목사(노누리장로교회), 부총회장에 오세훈 목사(세계소망교회)가 선출됐다.

제 44회 총회장으로 선출된 조문휘 목사는 “부족한 중을 중요한 직분과 사명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총회를 은혜가운데 인도해주셔서 해외 한국교단 중 가장 큰 교단으로 인도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인터뷰 16면] 며 “정통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을 계승해 하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을 수행해 많은 영혼을 살리고 제자를 삼아 우리 지역부터 땅끝까지 선교에 앞장서는 총회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조 총회장은 “총회가 계속해서 좋은 사역자 양성을 위해 총회 인정 신학교를 지원, 보충, 시정 정비해 신학교가 알찬 교육으로 양질의 훌륭한 목회자를

을 양성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하고 “대외적으로 NAPARC(북미주 개혁장로회연합회) 및 한국의 형제교단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동역하도록 하겠다”며 “총회의 실무적 일들은 각 상비부 혹은 상임부서가 전문성을 갖고 전략적이며 지속적으로 효과적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12일 저녁 7시 10분부터 시작된 개회예배는 양수철 총회장 사회로 김성국 목사(뉴욕) 기도, 주병렬 목사(워싱턴) 성경봉독, 조문휘 목사(부총회장, 뉴욕동) 설교, 한인철 목사 광고, 전 총회

이번 정기총회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190명(목사 179명, 장로 11명)이 등록된 가운데 미주내 한인교단 최초로 줌(Zoom)을 이용한 화상으로 진행됐다. 총회준비위원회(위원장 허민수 목사)는 부총회장 조문휘 목사가 속한 뉴욕동노회 주관으로 뉴욕참교회(담임 문덕연 목사)에 모여 화상총회를 진두지휘했다.



총회장 조문휘 목사



부총회장 오세훈 목사

장 김경진 목사가 축도했다. 조문휘 목사는 이번 총회 주제와 동일한 ‘은혜와 진리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교회(요1:14)’라는 제목의 설교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리문답을 통해 설명하며 “그 문서를 만든 분들이 사인한 내용이 있다.” (10면으로 계속)

“세상 끝 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20년 성령강림절 코로나19로 총체적 위기...성령의 역사로 이긴다



2020년 현재,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겪으며 신음하고 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은 육체적 아픔만이 아닌 정치·경제적 아픔이며 또한 정서적, 영적인 아픔이다. 교회들도 모든 예배와 모임을 온라인으로 전환한 지 벌써 두 달이 됐다. 교회마다 목회자들과 리더들이 애쓰고 있지만 아픈 사람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인들을 돌보기에는 역부족이다. 게다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보니 영적인 가뭄도 예상된다. 대부분의 직장인은 재택근무를 하고 있지만 꼭 필요한(essential)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 위협에도 외부에서 일하고 있다. 상가들은 대부분 문을 닫았고 식당은 테이크아웃 주문만 받고 있다. 5월 7일 기준으로 미국 내 실업수당 신청건수는 3,350만을 넘어섰다. 이렇게 해고된 인원은 수백만명이다. 게다가 1명꼴 정도다. 또한 이 시기가 더 길어지면 아직 실직하지 않은 자들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리라 예상된다. 대학을 갓 졸업한 학생들과 실직으로 인해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하는 사람들의 고용불안뿐 아니라 지금 겨우 견뎌내고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생존도 어려워질 것이 자명해지는 현실이다. 이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방법을 찾기 위해 아직 코로나바이러스가 가라앉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아니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현재의 자택대피(shelter-in-place)령을 더 오래 유지할 것인가가 요즘 정치권의 쟁점이다. 어떤 결정이 나든지 그들의 결정은 미국 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 여파를 감당해 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시국을 1929년 경제 대공황의 시기와 견주어 이야기한다. 지금까지 그 어떤 다른 자연재해와는 달리, 코로나19는 지역과 계층 그리고 성별과 인종의 차이와 무관하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총체적 위기다. 이런 상황에서 2020년 성령강림절을 맞아 교회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간구해야 한다. 하나님께 간구함은 여전히 위기에 대처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교회는 기도와 말씀 묵상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믿음 있는 결정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교회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서 나온 능력으로, 장기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속에서 지역사회를 돌보고 정서적,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돌볼 수 있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 명령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보며 무력감을 느낀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평소처럼 식사하고 병원진료도 받으려 갈 것이다. 그러나 평소와 같지 않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힘이 없다.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

다. 이럴 때 우리가 전 세계의 이웃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일은 무릎 꿇고 도움

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3면으로 계속)



푸른초장 김제이 목사



코로나19와 교회 (I) 퀸즈장로교회 기획위원회



총회장 인터뷰 조문휘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su.edu | (213) 669-9009 | 660 Shatto Pl., Los Angeles

성경말, 성경대,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chpress.com / chpress@chpress.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새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발행인 칼럼

그 날의 보고서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지난 5월 4일이었다. 필자가 섬기는 교회에 “기획위원회” 영상 회의가 있었다. 코로나바이러스 이후에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할지 논의하면서 위원들에게 몇 가지 주제로 연구하여 보고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였다. 지난 19일 “코로나19와 교회”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를 받아 보게 되었다. 보름 만에 받게 된 보고서는 결코 짧지 않은 내용이었다. 최선을 다한 모습이 보고서 곳곳에 스며있었다. 기뻐다.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 보고서 위에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구체적인 방향 설정에 도움을 얻을 수 있음이 분명했다.

신학교가 on-line 수업으로 역사적인 학기를 마쳐 간다. 신학생들이 각 과목에서 요청하는 과제를 대부분 제출하였다. 학업보고서이다. 필자의 과목에서도 두 개의 과제를 제출토록 했다. 그 중의 하나는 책을 읽고 3페이지로 간단히 깨달은 점을 요약하여 내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은 열두 배가 넘는 37페이지로 작성해서 제출했다. 그 양(量)의 많음에 놀랐고 질(質)의 높음에 놀랐다. 흐뭇했다. 최선을 다한 보고서를 읽으면서 많은 생각도 하게 되었다.

필자가 속한 교단의 총회가 있었다. 지금은 처음 겪는 것이 대부분이듯이 처음 경험하는 on-line 총회로 진행되었다. 지난 임원들의 아름다운 수고가 미리 받아 본 책자(冊子)로 그리고 직접 구두(口頭)로 결산되고 보고되는 것을 듣고 보았다. 그 출발이 엊그제 같았는데 벌써 일 년이 다 지나고 결산 보고를 한 것이다. 새로운 임원들도 시작하면서 임기가 끝나는 그 날의 결산 보고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으리라.

지난달에는 필자가 섬기는 교회의 장영준 원로목사님의 장례예배가 있었다.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목사님의 인생 결산서, 사역 보고서를 엿볼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너무 아름다운 보고서를 가지시고 하나님께로 가신 것 같았다. 목사님 삶과 사역이 남기신 감동의 여운은 내 생애에 가지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은가. 그의 하나님께 드린 보고서를 우리도 같이 읽어보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얼마나 깔끔한 보고서인가. 얼마나 진력(盡力)을 다한 인생 결산인가. 사도 바울이 생애는 감격, 그 이상이다.

최선을 다한 여러 보고서들을 듣고 보면서 훗날 하나님 앞에 드릴 내 인생의 보고서는 어떠한가 생각해 보았다. 하나님께서 받아보시고 “잘 했다” 하실 보고서가 준비되고 있는지 자성(自省)의 시간을 가져 보았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나의 보고서이지만 나 혼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 혼자 쓴다면 그 졸렬함으로 심히 부끄러울 것이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하신다면 풍성한 보고서를 쓸 수 있으리라. 내 삶에 맺혀진 성령의 열매가 바로 주님 앞에 내놓을 보고의 내용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는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다가 승천하셨다. 그리고 열흘 후에 성령께서 강림하셨다. 약속하신 성령강림이 나와 상관이 없다면 얼마나 참담한 일인가. 이제 길은 분명하다. 그 날에 하나님 앞에 드릴 보고서는 성령님과 함께 만들어가야 함을 깊이 깨달았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

TGC 편집자 조카터 목사에게 듣는 불확실한 시대에 영향력 있는 리더의 자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공포가 지구촌을 뒤덮고 있다. 사람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생활 방역 수칙을 성실하게 지키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며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이제 사람들이 실제 바이러스 감염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이 가져다준 ‘불확실성’이다. 불완전한 정보나 미지의 정보를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있다. 대다수 학자는 최근의 시대 구분을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할 만큼 전 세계가 코로나 전후로 급변될 것으로 예측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불확실성 시대에 교회 리더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또한, 교회 구성원에게는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현재 TGC(The Gospel Coalition) 에디터이자 버지니아 주의 맥린바이블교회(McLean Bible Church) 알링턴 캠퍼스에서 정 담당 목사로 섬기고 있는 조 카터(Joe Carter)의 제안을 살펴본다(Asking Small Questions in an Age of Uncertainty).

1. 너무 먼 미래까지 생각하지 말라

개인적이든 전 세계적이든,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갈 때는 너무 먼 미래까지 아우르는 결정을 삼가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성도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사람이 되기 위해 지금 내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무엇일까?”라는 고민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이번 주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라고 고민해야 한다.

고민의 단위를 인생 전반에서 1주일 단위로 좁히는 시도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작은 해결책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유를 얻는다. 그리고 이처럼

엇일까? 코로나 이후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야 할까?라는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질문이 더 효과적이다. 단순히 소식이나 정보를 검색하고 접하는 데 몰두

계에서 지략과 지혜를 잘 동원하는 것 등이다.

불확실성 앞에서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 슬기로운 네 가지 요소를 고려하며 바른 지식



고민을 1주일 단위로 좁히고 실제적 실천적 행동해야
하나님 명령 회피하지 말고 원칙수정은 지혜롭게 숙고

직면한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는 작은 질문을 던지면 더 큰 질문에 답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

2.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행동을 기반으로 결정하라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행동을 기반으로 결정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합리적인 정보를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소식과 정보를 알아보는 데 너무도 많은 시간을 낭비한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개인에게 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오히려 “공포에 빠지지 않고 바이러스가 더 퍼지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

하지 말고 실제적이며 실천적인 행동을 취해야 한다.

3.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할지 결정하라

자신에게 던져야 할 가장 단순한 질문은 “슬기롭게 행동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다. 잠언 13장 16절은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나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고 말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슬기로운(prudence)은 첫째로, 주의 깊고 지혜로운 사리판단이며 둘째로, 경솔하게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 것이다. 셋째로, 주어진 달란트와 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 넷째로, 다른 이들과의 관

에 기초해 행할 수 있게 하는 정보를 얻어야 한다.

4. 원칙 수정을 경솔하게 하지 말라

불확실성은 사람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원칙들을 수정하게 만든다. 사람들은 불확실성과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면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을 벗어난 행동을 하곤 한다. 그러나 무언가

를 결정할 때는 원칙 수정을 경솔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 때로는 원칙 수정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원칙을 지켜야만 할 때가 더 많기 때문이다.

특정 상황에서 예상되는 상수와 변수가 무엇인지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5. 작은 질문을 큰 질문 두 개에 연결하라

불확실성을 핑계로 하나님의 변함없는 명령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의사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하는 ‘작은 질문’(실천적인 행동을 기반으로 결정을 내리기 위해 던지는 질문)은 궁극적으로 ‘큰 질문’ 두 개에 연결돼야 한다.

그 큰 질문이란 “이 결정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가?” 그리고 “이 결정이 나의 이웃 사랑을 담아내는가?”이다. 두 질문은 우리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을 함께 섬긴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시대를 사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과 백성을 향해 다윗왕이 던졌던 작은 질문을 해보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십니까?”(삼하 21:2-4)

이처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리더가 고려해야 할 큰 주제 중 하나가 ‘불확실성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665-0009 (대표) (213)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886-4400 (대표)
· Fax: (718)886-0074 (대표)
· E-mail: ny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출판에 대한 문의는 히즈핑거 (His Finger)

히즈핑거는 주님의 손가락처럼 기독교 문화와 문학에 쓰임 받고자하는 미주크리스천신문사의 문화출판사 이름입니다.



천성은 있습니다. 천성에 가야합니다. 누구나 짧은 길던 이 세상에서 일생이라는 여정을 끝내면 영원한 곳에서 살게됩니다.

김성국 목사가 방황하는 이 시대에 전하는 하나님의 뜻!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이 질문에 답을 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까 천성 가시길 원하신다면 반드시 대답하셔야 합니다.

히즈핑거 (His Finger) 이메일 hisfinger8386@gmail.com 또는 전화 (718)886-4040, (323)665-0009로 연락해 주세요.

“세상 끝 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1면에서 계속)

특별히 성령강림절을 맞는 이 순간에 드리는 기도는 더욱 더 간절하다. 바로 성령의 부요심이 절대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성령 세례를 받고 거리로 나가 담대히 복음을 전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의 힘도 바로 이 성령강림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해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3천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회개운동도 바로 이 성령의 역사였던 것이다. 이 성령의 강림은 사랑의 원동력이 되고 회개의 눈물의 샘이 되고 위로와 격려와 용기의 동반자가 된 것이다.

성령강림 후 이 믿는 공동체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를 이루나갔다. 미신과 우상의 세계로부터 탐욕과 이기적인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이웃의 필요를 이해하고 아픔을 함께

여 질려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있던 제자들을 향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시며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하시며 주셨던 성령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것이다.

“보혜사”라고 번역된 “파라클레토스(parakletos)”는 본래 회생을 각오하고 친구의 무죄를 위해 줄곧 함께 앉아서 힘이 돼주고 위로해주는 변호인을 의미한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바람 같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이 어찌서 그토록 용감해지고 자신이 생겨서 의욕이 넘쳤을까? 그것은 이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성령의 놀라운 힘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약속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28:20)는 바로 이 성령의 강림으로 가능한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의 기반이 흔들



날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로 바뀌었다.

따라서 성령강림은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분명히 한다. 그것은 바로 세계 모든 곳까지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교회는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무장이 돼 있어서 그 사명을 끝까지 이뤄야 한다는 것이다.

성령강림은 온 세상을 바꾸어 놓았다. 성령강림은 교회를 만들었다. 성령강림은 당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사람들을 변화시켰다. 성령강림은 오늘날에도 그 당시와 똑같은 역사를 이뤄 가신다.

너무 불확실한 현 상황에 너무 지치고 힘들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바로 성령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위해 오셨다. 겹

들리고 있음을 사람들에게 일깨워줘야 한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고, 세계는 불확실하며, 우리는 모두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폭풍을 잠재게 하실 수 있으며, 반드시 그렇게 하시리라는 믿음 가운데 유일한 반석 되시는 그분을 세상에 전파하며 영화롭게 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가가며 진정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이 시련의 때, 다시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 나라를 넓혀 가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기도한다.

(편집부)

6피트 사이에 새 삶이 있다.



이동진 목사 (성화장로교회)

길어지고 있다. 언제까지일지도 예측하기가 어렵다. 바깥에 있는 게 분명하데 희미하다. 지금 우리가 들어와있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다. 확실하게 짐작할 수 없지만 앞으로 살아갈 세상은 지금까지 살아온 방법과 모습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그래서 B.C(before Christ)/A.D(Anno Domini)로 나누던 인류역사가 이제부터는 BC(before corona19)/AC(after corona19)로 구분될 뿐 아니라 생활을 위한 금전거래가 현금결제(cash)에서 카드결제(digital currency)로 바뀌는 ‘C에서 D로’ 등 모든 분야에 신속한 변화가 올 것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같은 미래의 변화에 대해 한국의 이광형 교수(KAIST석좌교수)는 STEPPER라는 단어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빛을 프리즘으로 분석해보듯이 보이지 않는 미래세계를 사회(S), 기술(T), 환경(E), 사람(P), 정치(P), 경제(E), 자원(R)의 일곱 요소로 세밀하게 나누어 분석해보아야 할 것을 제시했다.

이중에서도 가장 우리를 당황시키고 있는 것은 사람 사이 관계의 변화라고 이 교수가 짚었다. 이젠 6피트(feet)를 떨어져서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래서 한 신문만하는 유리로 막혀있는 개인 식탁이 놓여진 미래의 식당모습을 제시해놓았는데 SNS에는 이미 1963년 유럽의 한 신문이 이런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한 듯 지금 개발되는 1인용 차량과 거의 흡사한 모양의 자동차들이 도로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림을 소환해 우리를 놀라게 하고 있다.

경제 재개를 위해 그동안의 행정지침을 완화하는 지역도 있지만, LA는 불편함의 시간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현실적 어려움은 더 지속되게 되었다. 모두의 안전을 위해 불편은 참아야 하고 함

께 협력해야한다. 그러나 시민들은 불안하다. 개인도 불안하고, 가정들도 불안하다. 개인 비즈니스는 물론 웬만한 회사들도 불안함을 감출 수 없다.

교회에도 여러 생각과 방법들이 제시되고 시행해보지만 교회도 사실 두렵기는 마찬가지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무조건 믿음’으로 조종하 순종하고 있는 것 같은 우리의 모습 속에 스며있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한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을 믿으라, 세상 주관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의 손이 일하고 있다”고 강하게 선포하고 주입시키는 방법. 그러나 아무리 설교를 통해 그렇게 말씀을 외친다 해도 질게 드리는 코로나블루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시련을 통해 무슨 해법을 제시해야할지, 부흥사처럼 강경한 문장으로 이러한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려고 선포해야할까. 관찰아질 거라는 미사여구로 보듬어주어야 할까.

그러나 기존 언론매체는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동안 인류와 역사 앞에 문제가 생기고, 당장 민초들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들을 좌절에서 이끌어낸 적도 없고 불같은 사명으로 생명력을 메시지를 통해 시대를 이끌지도 못한 것이 사실이다. 사실 하나 제대로 쓰는 신문사나 청중의 가슴을 울리는 칼럼도 없는 방송 등 교계언론이 교회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끌만한 리더십은 커녕 이민교회의 상황을 제대로 분별할 능력도 갖추지 못해왔던 것을 감출 수 없다. 결국 6피트가 아니라 기독교인은 교회로부터, 성도들로부터 6피트, 아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멀리 떨어져있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이 말은 지금 교계언론에 대한 자성만은 아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만이겠는가? 난립해있는 기독교인들만이겠는가? 이 자성의 고백은 우리네 교회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기독교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기독교인인 우리, 특히 목사, 장로 등 교회리더십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이자 자성의 고백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상황에 내리지는

정부와 관련부처의 대응과 해결책을 보면서 그래도 이 상황과 미래를 바르게 다시 세울 수 있는 길은 교회가 감당해야한다는 무언의 책임감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일부터 시작하고자 제안한다.

사람과 사람의 사이를 6피트로 규정할 지침은 거리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정한 것이며, 이 social distancing은 떼어놓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도록 하는 것이라고 받아들이자. COVID19가 제시하고 있는 이 거리두기는 결국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지침이 아니라, 내가 너를, 우리가 서로 더욱 존중함으로 보호하는 마음과 하나 된 운명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장치임을 깨닫게 해주는 지침이라고 받아들이자.

한국에서는 행동지침이 완화된 후 이태원의 한 클럽을 통해 한데 뒤엉킨 젊은이들의 물리적 가까움이 결국 다시 아픔 속으로 사람을 끌고 들어갔다. 클럽사건을 통한 확진자 증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얼마나 생명과 관계있는 일인지 다시 확인하는 사건이 되었다. 이젠 정말 어려울 흥청대는 놀이문화에서 거리를 두고 앉아 난을 치는 선비들의 놀이 같은 품격과 예의를 회복하게 되기를 기대한다. 근접시각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한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는 시선이 더 많은 것을 보고 느끼게 해주면서 우리가 놓친 많은 것을 다시 찾게 해주리라 기대한다.

교회당 예배를 잠시 멈추고 흠어진 자리에서 드리는 ‘자가격리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진정한 축복의 자리로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어렵게 깨닫고 있는 지금, 우리는 이 불편함 속에서 서로사랑의 마음을 찾아내고,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되어 사는 마음을 더 배우는 축복의 시간을 열어 나가야 한다.

사람의 생각은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펼치고 위로를 얻으며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고 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니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베스트셀러 / 성구 / 성화 액자 / 가운 / 교회용품 / 영문성경 / 영문기독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Tel. 718) 762-0011
 40-21 159th St., #18 Flushing, NY 11358
 뉴저지(Tel. 201) 346-0030
 5 Birkenhoff Terrace Palisades Park, NY 07650
 www.bestsaver.us 917-863-0301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영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개인 특수검체(비디오 내시경) 시행
 매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 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7
 진료.인내 - 치아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의뢰.박사 이규성 원장
 진료.인내 - 치아식(임플란트), - 구강외과, 틀니, - 보철치과, - 미용성형치과, - 신경 및 잇몸치료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www.chpress.net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지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347-223-1531
 광고문의: chpress.kjs@gmail.com | info@chpress.net
 718-886-4400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리더십 석.박사 MBA, DL, Ph.D.
리더를 위한 전문 학위과정
34년 전통, 70여개국 동문들의 세계적인 네트워크
한국어, 영어, 특강, 온라인
미국유학 가능 (SEVIS I-20, J-1 Visa)
Graduate School of Leadership 리더십 대학원
M.B.A.
Doctor of Leadership
Ph.D. in Leadership
 Major
 Brain / Gifted Educational Leadership 두뇌개발, 영재교육
 Management Innovation Strategy Leadership 혁신경영 전략
 International Culture & Arts Leadership 국제문화예술
 Organizational / Ministry / Mission Leadership 조직, 목회, 선교
 Real Estate Management Leadership 부동산 경영
 Defense Fusion Leadership 국방융합
 Entrepreneurial Leadership 경영
 International Aviation Leadership 국제항공
 Public / Political Leadership 공공, 정치
 Sports Management Leadership 스포츠 경영
문의 : 전화 (636)327 - 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www.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 (636)327 - 4645 / Fax : (636)327 - 4715
 E-mail : usa@midwest.edu
 Washington DC: 5103 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Campus
 Tel : (571)730 - 4750 / Fax : (571)730 - 4751
 E-mail : wdc@midwest.edu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처음 경험해 본 영상 총회

Covid-19 사태로 인하여 미주 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44회 정기총회가 온라인 영상으로 진행되었다. 2백여 명의 회원들이 사상 처음으로 영상 총회에 참여하면서 가졌던 개인적인 소감들을 적어본다. 원래 이번 총회는 교단 역사상

처음으로 제 3의 장소로 캔쿤이라는 휴양지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다. 작년이 그 장소가 결정되었을 때 회원들은 마치 맛있는 외식을 기대한 것처럼 캔쿤에서의 색다른 총회를 체험하게 될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아박한 코비드는

소박한 꿈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 버렸다. 이번 영상 총회를 준비하는 위원들은 처음 접하는 경험들이라 행여나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의 준비에 대비했다고 한다. 한두 달 전부터 회원들을 대상으로 예행연습을 거듭해왔다. 부총회장 모의투표도 두 차례씩 시도하였다. 19개의 각 상비부의 회의도 미리미리 영상 회합으로 준비하였다. 그리고 예정된 날에 역사적인 영상 총회는 개최하였다. 미국 동부시간을 기준으로 오후 7시에 개최예배를 시작으로 2일 동안의 회무를 잘 처리한 후에 폐회하였다. 우선 개회 시작하기 전에 미리미리 영상에 들어온 회원들의 얼굴들을 마주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캐나다와 미국 전역과 중남미 그리고 필리핀에 흩어져 있는 30개 노회의 목사 회원과 장로 총대들이 각자의 인터넷 화면에 얼굴들을 올리고 있었다. 증명사진보다

는 약간 큰 화면 속에서 많게는 25명의 회원들 얼굴이 비춰졌다. 회원들 전체를 보려면 이 화면들을 10차례 이상 넘겨야 볼 수 있었다. 사회자나 발언자의 얼굴은 전체 화면을 차지해서 아주 가까운 친근함을 맛보며 시청할 수 있는 편리함도 좋았다. 우선적으로 영상 총회의 편리함은 지역적 공간 거리감을 없애주었다. 첫 순서였던 개회예배의 진행을 보면 더욱 실감이 났다. 예배 사회자는 LA에서, 대표 기도와 성경 봉독은 각각 NY에서, 워싱턴에서, 설교자는 뉴저지에서, 그리고 축도는 토론토에 있는 회원이 각각 담당을 했다. 찬송을 부를 때에는 화면에 올라온 악보와 반주에 따라서 아시아에서 북미와 중남미에서... 하와이에서 알래스카에서 각각 불렀지만 우리는 모두 한 자리에 있는 듯한 공간을 초월한 일체감을 잠시 실감하기도 했다. 참 좋은 세상이었다. 부총회

장을 투표하는 일도 아주 간단하게 신속하게 처리하여 인터넷 전산화의 장점을 실감하기도 했다. 크고 작은 부서의 모임들이 2시간에서 5시간씩 걸렸지만... 시간적인 면에서 상당한 여유를 갖기도 했다. 각 회원들의 거주지와 나라에 따라서 시차가 각각 달랐기 때문에 식사도 회원들이 각자가 해결해야 했다. 음식을 먹을 때에는 자신의 비디오를 끄면 자신의 화면에 이름만 뜨고 본인의 얼굴 모습은 방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오디오와 총회의 진행 비디오는 계속 영상을 볼 수 있어서 참 편리함을 느꼈다. 식사를 다 마치면 다시 각자의 비디오를 켜면 자연스럽게 영상 회의에 참여할 수 있었다. 영상 회의의 장점이라면... 시간절약 면에서는 획기적인 효과가 아닐 수 없었다. 보통 매년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는 오고가는 비행거리 시간만 해도 보통 이틀을 차지하곤

했다. 여기에 현상에서 7-8개의 식사에 소요되는 시간도 짧은 시간이 아닌데 영상 총회에서는 이런 시간들을 모두 거절하였다. 또한 하루 회원들의 친교의 날도 할 수 없어서 삭제되었다. 단순히 본 회의와 회하는 차질 없이 소기의 일정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었다. 이것이 큰 장점인 동시에 또한 결정적인 아쉬움으로 남았다. 비행기 요금절약이나 거리 이동 시간절약이라는 면에서 영상 총회는 지대한(?) 공을 세웠지만 인간적 만남과 사귄다고 따뜻한 영성의 나눔과 동역자들의 영적 일체감을 대변하는 풍요로운 단체사진 속에 담겨야 할 역사적인 추억의 기록을 허락하지 못한 것은 영상 총회의 결정적인 원인이 아닐 수 없었다. 세상만사에 양면성은 언제나 존재한다는 진리를 또 한 번 실감하는 영상 총회가 되었다.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김제이 목사
(버지니아 제일 침례교회)



I. 서론(Introduction)

답답하지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들에게 세계 일주를 시켜드리려고 세계 명소를 찾아보았습니다. 잠시 기분을 전환해보세요. 이란, 프랑스, 터키, 독일, 브라질, 이태리, 영국, 소련, 스페인, 미국...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순서로 여러분들이 관광을 하셨는지?

아름다운 나라? 세계 강국? 여러분들이 보신 10개 나라는 Coronavirus 확진자가 10만명에서 150만명까지 이르는 10대 나라입니다. 스페인, 이태리, 영국, 사망자수가 2만명이 넘고 우리 미국은 확진자가 가장 많은 백오십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 또한 9만명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답답하고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외출을 자제하시는 것이 감염이 안되는 첩경입니다. 물론 감염되어서는 안됩니다. 그런데 감염되어 고통 받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의료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그치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만도 의료계에 종사하시는 식구들을 가지신 가정은 10가정이 넘어요. 병원에 환자들 이 남의 일이 아니고, 치료하는 의료진들도 남의 일이 아니에요. 내 남편이고, 주인이고, 아들이고, 딸입니다. 집에 가서도 아이들을 못 본답니다. 아이들이 감염될까봐서요. 목숨을 내어놓고 하루 12시간, 또는 30시간 넘게 치료 수술하면서 쪽집을 잡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얼굴이 벗겨지고 상처가 납니다. 완전한 방역이 없어서 쓰레기 백으로 대신합니다. 기구가 없어서 뭐든지 가능한 것으로 입을 막고 머리에 쓴다고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현실이 와 닿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전염병이 통제 가 되기 전에 자택격리를 풀어달라고 데모를 하나까요. 감염이 되면 감염이 되는 가보다 하는 생각이겠지요. 하지만 나로 인해 식구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감염이 되면 어떻게 해요. 이것이 통제 되어야지요.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우리의 무기는 기도입니다. 믿음을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기도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도 그런 상황이었습니 다.

II. 배경(Textual Background)

선지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시대는 유다의 마지막 왕

님의 음성이십니다. 그리고 당부입니다. 지난 주 예배를 드리시면서 삶의 새로운 목표를 정하셨나요? 그러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보십시오.

III. 응용(Application)

1. 부르짖으라(Call to me)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

와,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18세기 영국은 산업혁명으로 물질적인 풍요를 누렸지만 윤리적 도덕적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무렵 시골에서 도시 런던으로 올라온 소년들이 있었습니다. 가까스로 전당포에 취직을 했습니다. 아침마다 가게 앞과 골목길을 청소하며 지나간 밤의 광란이 스쳐간 거리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소년은 하나님을 향하여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런던거리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을 펼쳐들었는데 시편 5편 3절 말씀이 보였습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소년은 아침마다 빗자루를 들고 거리를 쓸기 전에 기도

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HRV). “크고 은밀한 일” 위대하고 초자연적인 신비한 일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상상으로 생각지도 못한 길을 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기발한 길을 터주시고, 기발한 일을 알려주십니다. 백신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치료제도 나올 줄 믿습니다. 강물처럼 눈물을 흘리며 쉬지 말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적 으로 너무 힘들어서, 답답해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다 하실지라도 이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십시오. 기도할 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

고”(HRV). 어디를 봐도 황량할 뿐이고 심란하기만 합니다.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고, 걱정이 없는 가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이런 것들을 다 고쳐주시는 겁니다. 고쳐주시는 하나님! 말 4: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니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고쳐주실 것입니다. 온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IV. 결론(Conclusion) Eric Church는 컨츄리 싱어입니다. 3년 전 라스베가스 콘서트 3명의 주된 공연가수로서 첫날 그의 공연을 마쳤습니다. 셋째 날 64세 Stephen Paddock이 기관총으로 Harvest Music Festival을 하는 야외 콘서트장을 향해 난사하면서 58명이 사망하고 489명이 중경상을 입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10월 4일에 Nashville Opry land에서 공연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기타도 들고 싶지 않았고 공연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더 충격을 받은 것은 그를 보기 위해서 테네시에서 온 부부 때문이었습니다. 29살 간호사인 남편 Sonny Melton이 부인 Heather를 살리기 위해 부인을 가슴에 품고 있다가 총에 맞아 사망한 것입니다. 이 부부들은 금요일에 있었던 Eric Church의 공연에 참석하고 연이어 내슈빌에 있을 공연까지 표를 이미 예약해 놓은 부부였었습니다. 공연을 포기하려다 내슈빌 공연에 참석하며 연신 흐느끼며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평범하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everyday hero를 위해서 노래를 하기로 했으며 그의 슬픈 마음과 아픈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릅니다. 비록 혼동이 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시며 산성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요새이시며 피난처이십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역사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it is time to cry out to God)

예레미야 33장 2-9절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유다는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바벨론에 멸망하도록 심판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이 여호와께 돌아올 것을 선포하게 하셨지만 유다백성이 듣지 않음으로 멸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 일로 예레미야는 국가 모독죄로 감옥에 수감되었습니다. 암담한 유다의 현실을 보고 있는 예레미야는 실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곧 닥쳐올 유다의 멸망을 생각하며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유다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33:2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HRV).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생생한 하나

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HRV). 하나님께 부르짖으라합니다. 예레미야의 상황은 예레미야에게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2:18 “저희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처녀 시온의 성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로 쉬게 하지 말지어다”(HRV). 2:19 “밤 초경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네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몰 쏟듯 할지어다 각 길머리에서 주려 혼미한 네 어린 자녀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HRV). 쉬지 말고 두 손 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손을 들고’라는 의미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라는 자세입니다. 끊임없이 통회자복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

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쓰는 것은 런던거리의 쓰레기지만 이 민족의 영적 쓰레기를 치우기를 원합니다. 도시를 깨끗하게 하는 청소부가 아니라 이 백성의 영혼을 청소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복을 받아 받은 복으로 이 도시를 살리게 하여주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영향력 있는 인물로 만들어 주소서.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 영향력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인물이 되고 싶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였습니다. 결국 그의 리더십이 살아나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가 영적 거성이며 산업혁명시대에 영국을 구해냈던 구세군 창설자 윌리엄 부스(William Booth) 대장입니다.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2. 응답하라라 보이리라(I will answer and Tell you)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

나의 기적을 보기위해 우리 함께 부르짖으십시오. 3. 고쳐주리라(I will Heal you) 33:6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낮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에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HRV). 또한 하나님은 황폐해진 성을 치료해서 낮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성한 데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장은 황폐할 대로 황폐해졌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 지금 우리의 상황인 것 같아요. 이사야 1:6 “밭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어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1:7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웠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것이 황무하였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코로나-19로 호텔에 투숙된 홈리스 중독자에 마약과 술 제공

지난 5월 8일 한때 노숙자였다고 밝힌 한 남자가 자신 소개와 함께 현재 샌프란시스코 시가 코비드를 이유로 실행하는 “호텔, 술, 마약 제공정책”은 노숙자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지적한 트윗이 글을 다음과 같이 올려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나는) 노숙과 약물 중독에 대한 #진실을 옹호하는 #회복 중에 있는 과거 노숙자: (나는) 믿음, 소망, 사랑, 샌프란시스코 출신, 트윈은 내가 직접 올린 것이다”라고 자신을 소개한 후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SF의 호텔에 머물도록 배정된 노숙자들이 일반 중독자 혹은 알코올중독자란 이유만으로 술 뿐 아니라 마약류인 대마초에 메타돈까지 호텔로 배달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당신들(시당국)은 진정한 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걸 오히려 중독을 부추기는 것이며, 여러 면에서 잘못된 것이다.”

그 남성이 올린 트윗에 대하여 SF 공중보건국(SFDPH)이 즉시 답글을 올렸는데, SFPDH는 “약물을 제공하는 것은 사람들이 성공적으로 격리를 완료하도록 돕는 ‘해약 감소 기술(harm-reduction technique)’이라 해명하고, 그 약물들이 납세자들의 돈으로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쟁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논쟁중 몇 가지는 이 정책이 진정 홈리스들을 돕는 것인지 아니면 마약중독을 더 장려하는 것이냐는 것이며, 정부가 홈리스를 격리시킨다는 이유로 물질/재정 사용에 있어서 그것이 궁극적으로 최선의 선택이냐는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COVID19 상황으로 생명의 위협과 싸우며 고생하는 소방서, 경찰, 의사, 간호사들을 위한 호텔제공이 더 시급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

다. 왜냐하면 수고하는 이들 이야말로 잠시라도 편히 쉬게 할 수 있는 곳이 가까이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노숙자 주거 프로그램이란? 이 주거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노숙자들은 60세 이상인 기초 질환자들이 우선순위에 대상자이며,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대응책 속에서 노숙에 처한 사람들을 수용하기 위해 가장 먼저 사설호텔, 집합장소, 트레일러, RV 등 많은 대체 주택 옵션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목요일(5월7일) 시의 데이터 추적기(Data Tracker)에 따르면 700명 이상의 노숙

Room-key)” 조치를 선전하며 연방정부가 노숙자 생활을 하게 된 일부의 사람들과 관련된 비용의 75%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으며 캘리포니아는 코로나바이러스 대응기간 동안 15,000개 이상의 호텔방을 확보하여 노숙자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고, 당시 모델6 호텔 체인과 새로운 협정으로 19개 카운티의 47개 지역에 5,025개의 호텔방을 추가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FPDH(샌프란시스코 공중보건국)는 성명에서 “많은 분리 및 격리 투숙객들은 매일 약물을 사용한다고 말하는데, 이 기간 동안 일부 사람들은 중독 치료와 감소 치

한 마약사용 허락인지, 그리고 이런 사용이 캘리포니아에 앞으로 가칠 영향이 어떤 건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의도였는지 모르지만 최선의 방법일까?

이미 중독에 걸린 사람들과 시민들을 진정으로 돕기 원한다면, 위의 “전노숙자/중독자” 남성이 이야기했듯이 노숙자들에게도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마약중독이 있는 노숙자들에게는 “계속적인 치료”에 도움을 줄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칫하면 마치 인디언(Native American)들에게 “선”이라고 이행했던 정책의 실수가 다시 실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특별히 마약중독에 걸렸다가 어렵게 해방된 사람들이 똑같이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마약중독 홈리스들이 투숙기간동안 호텔 안에서의 행동들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알코올과 약물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 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약중독 홈리스들의 관리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경찰과 의료진의 인력이 필요할 텐데 현실적으로 이 인력들은 절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노숙자를 돕겠다는 샌프란시스코와 게빈 뉴섬의 의도가 좋게 시작했는지 모르나, 샌프란시스코 시당국과 게빈 뉴섬 주지사의 현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인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겉으로만 “선해 보이고 친선방”이 아닌, 속까지 진심으로 불쌍한 이들과 어린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보호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들에게 주거가 마련되었으면, 노숙자 투숙객들이 분류되기 전에 그들은 약물중독에 대한 검사를 받고 투숙기간동안 약물사용에 대한 감소와 중단에 대해 지지여부를 물어보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SF시는 노숙자, 최전방 근로자 및 인구밀도가 높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8,250개의 호텔방 임대마련 계획의 마감일도 정했습니다만 COVID-19가 발발하기 전부터 캘리포니아의 높은 세금과 부도의 위기에 있는 경제상황으로 노숙자가 증가하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캘리포니아에 얼마나 총족이 될지 모릅니다.

게빈 뉴섬은 지난 4월에 “프로젝트 톱키(Project

료에 처음으로 연결될 수 있게 되었다”, “오락용 대마초 구매를 관리하지 않았지만 메타돈(Metadone)은 오피오이드 사용 장애(opioid-use disorder)를 가진 사람들에게 제공되도록 했다”라고 말하며, 필요에 의해서만 주류 마약, 마리화나, 담배의 “제한된 양”이 제공되고 있다고 확인해주었습니다.

또한 그 약물들은 면허증 있는 의사들의 지도하에 투여된다고 알려졌지만, 아무리 ‘면허증 있는 의사들의 지도하에 투여’된다고 해도 이미 의학적으로 몸과 정신에 무척 해로운 오락용 마리화나와 버섯마약까지 통과시킨 캘리포니아의 마약 기준을 따른다면 얼마큼의 약물 기준을 누가 정상이라고 하는지,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 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어머니주일 때 목사님을 통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훌륭한 믿음을 설교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톨릭에서는 지나치게 마리아를 높이기 위해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았고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하는데 이것의 잘못된 점을 성경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팔로스 버디스 김 권사

A: 이 질문에 대해서는 먼저 로마가톨릭이 마리아론의 4대 교의를 말하는데 2006년에 한국 가톨릭교회 주교회의 신앙교리위원회가 펴낸 “올바른 성모신심”에 의하면 “마리아에 관한 주요 교리는 첫째, 하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둘째, 평생 동정녀이신 마리아 셋째,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 넷째, 하늘에 올림 받으신(승천) 마리아 등 네 가지로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마리아에 관한 교의는 가톨릭교회의 성모 공경에 대한 역사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오늘 질문하신 것은 개톨릭의 마리아 4대 교의 중에 두 번째인 마리아가 예수님 출산 이전까지 뿐 아니라 출산 중에도 그리고 평생에 동정녀로 머물렀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교회의 공식적인 교의로 채택되고 선포된 것은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공의회에서 부터이다. 이 공의회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평생 동정녀이신 마리아’(sanctam gloriosam semper Virginem Mariam)라는 호칭을 공식적으로 결정했고, 649년에 열린 라테란공의회에서는 ‘평생 동정녀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모친이며... 동정이 손상되지 않고 낳으셨으며, 출산 후에도 영원히 동정녀시라는 것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 낳은 후 요셉과 동생들 출산... ‘평생동정성’ 교의는 잘못

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파문을 받을지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렸다. 후일에 토마스 아퀴나스 역시도 이 교리를 부정하는 사람은 ‘성령의 권위에 대해 모욕하는 자’라고 정죄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결정된 ‘평생 동정’ 교의는 지금까지도 가톨릭의 공식적인 교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기로 오면 취리히의 개혁자 츠빙글리(Zwingli)나 몇몇 개혁교회 신앙고백 문서들에서도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존 칼빈은 “신앙요리문답”(1538판과 1545년판에서) 속에 단순히 그리스도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고 언급합니다. 주저 “기독교 강요”(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1536, 1559)에서도 마찬가지로 언급합니다. 그는 이 교의를 받아들여 신중했습니다. 에피파니우스는 예수의 형제들을 요셉이 마리아와 결혼하기 이전의 결혼에서 낳은 아들들이라고 하는 견해를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의 형제들 야고보와 유다 등은 예수의 의복 형제들이 되는 셈입니다.

마리아의 출산 이전 뿐 아니라 출산 중과 출산이후 평생 동안 동정녀였다고 하는 교의는 성경에서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예수님을 “첫 아들”이라고 호칭하거나(눅 2:7), 요셉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마:1:25)고 명시하거나, 예수님의 형제들과 자매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마13:55, 막 3:31-35).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에서 일반적으로 설교되듯이 이 예수의 형제들과 자매들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은 후에 요셉과의 사이에서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마리아의 평생 동정성 교의는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 (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동 870-10호					
금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구구 영우동 340-1(131-231)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매일)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343-8676(주무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3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주일7부: 오후 7:00(월-토)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8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 (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 (82)2-996-9998, Fax. (82)2-1008 서울시 강북구 수유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윤상욱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11:0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토요일은 없습니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정교회 담임목사: 이성준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68-0191, Fax. (82)32-562-2738 인천시 중구 개화4-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최영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137 번지	시온소교회 담임목사: 김철승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평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기용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05-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박영석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82)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박노훈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3142-8080, Fax. (82)2-336-4188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www.estincheon.org	안암 제일교회 주일1부예배: 오전 9:2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기도회: 오후 8:00 Tel. (82)2-2648-4508 서울시 동대문구 안암동 3길 50-1 www.anamjeil.or.kr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예배4부: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불암로 415 www.yangok.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신일권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일기도회: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서울시 서초구 신원동 137번지 79-12	주안교회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현면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9-4508 서울시 강북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최현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서정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천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0:0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4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말레이시아의 남부 사마족

말레이시아 남쪽에 있는 사마족은 보루네오섬 북동쪽 사하 해안의 길고 작은 조각들을 따라 살고 있다. 그들은 사마의 큰 집단에서 많은 소집단으로 존재하며 사마 시부투 방언 즉 바자우언어를 사용한다.



사마(Sama) 혹은 사말(Samal)은 사마의 다양한 집단-바자우 사용자들은 팔리핀 중심으로부터 보루네오 동쪽 기슭까지와 술라베시로부터 인도네시아 동쪽의 로파까지 거주-을 포함한다. 사마 사람들은 본래 섬과 술루의 북동쪽 성으로부터 남동쪽의 민다나오로 분리돼 해안지역에 정착했다. 이는 중국무역의 확장으로 첫 말레니엄 AD경에 처음

부터 이주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대부분이 남쪽과 서쪽으로 움직였고, 주요한 술루 알자펠라라고 가난 술루, 그리고 동쪽의 보루네오 해안을 따라 정착했다.

삶의 모습

사마인들은 주요 경제적 활동이 고기잡이인 해변의 사람들이며 또한 해상여행무역과 농사에 종사한다. 코프라(코코넛 기름을 생산하는 말린 코코넛고기)는 주요한 상품작물이다. 그러나 코프라 보유가 작아 무역을 하는데 무역은 또한 사마사회의 중심부에 서 점유한다. 해변의 집단은 역사

적으로 해상여행자들과 말린 고기 즉 트레캉(바다오이), 진주, 진주껍질, 그리고 다른 품목의 생산자들처럼 그들의 항해 기술을 가치 있게 여긴다.

신앙

사마사람들은 거의 모두 태양의 무슬림이다. 이만(이슬람의 지도자)과 다른 모스크 관리들과 같이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 박식한 이들은 파키(paki) 혹은 파킵(paki)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거의 모든 중요한 의식을 주재하고 종교적인 상담가로 활동한다. 금요일 기도는 모스크의 지역교구에서 수행되고

매일 기도의 1주순환으로 절정에 달한다. 또한 연중 종교적인 행사 일정이 거행되고, 라마단(랍잔)때는 이슬람의 절식일과 마호메트의 생일을 축하한다.

사마사람들은 여전히 몇몇 그들의 전통적인 민족의 종교적 신념을 갖고 있다. 죽음의 정신은 그들의 죽음의 부근을 간직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되고, 삶을 통한 계속적인 일상사의 표현을 필요로 한다. 어떤 죽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힘의 원천이 된다고 보고한다. 사마의 말 동안에 신은 이 세상에 되돌리기를 원하는 죽음의 영혼들을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들의 명예를 위해서 삶은 죽음에 대한

특별한 기도와 죽음의 청소를 제공해야 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말레이시아 남쪽의 사마족은 대략 100%가 태양의 무슬림이다. 거기에는 그들 중에 일하는 최근의 전도국이 없고, 그들의 언어로 된 기독교 자료는 소수이다. 단지 성경의 일부만이 사마 시부투로 번역됐다. 선교사들과 기독교 매체 전부가 남쪽의 사마족에게 도달하기 위해 노력이 꼭 필요하다. 그들이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간구해야만 한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국 교회 97% 4월 온라인에 배드러

미국 교회의 97%가 지난달 성도들과 온라인에 배를 드린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조사 결과(92%)보다 5% 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반면 오프라인 예배를 진행한 비율은 미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 2월 99%에서 1개월 만에 7%까지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의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는 지난달 27-29일 목회자 47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한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45%가 '코로나19 이후 예배 영상을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30%는 실시간 중계 없이 설교 영상 콘텐츠를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있었고 22%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온라인을 활용해 예배를 중계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스콧 매코넬 라이프웨이리서치 대표는 "많은 교회가 코로나19 확산 전까지 라이브스트림 서비스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았던 것을 고려하면 지난 6주간 교회가 이런 기술적 발전은 놀라울 정도"라고 말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성도들이 늘면서 교회 재정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라이프웨이리서치가 지난 3월 조사했을 당시 '올해 초 대비 헌금액이 줄었다'는 응답이 52%를 차지했지만, 지난달 조사에서는 40%로 낮아졌다. '연초와 비슷하다'는 응답은 18%에서 42%로 대폭 상승했다. '연초에 비해 늘었다'는 응답도 2%에서 9%로 뛰어올랐다.

매코넬 대표는 "2017년 조사에서는 온라인 헌금을 활용하는 교회가 30%에 그쳤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64%로 늘었다"며 "코로나19로 헌금이 감소했지만, 교회가 온라인화에 빠르게 적응하면서 회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에서는 '코로나19와 성도의 신앙생활'에 대한 문항도 있었다. 응답자의 35%는 '코로나19를 통해 성도와 신앙적 교제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고 답했고 8%는 '코로나19 확산 후 신앙적 교제를 나눈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고백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의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5%이다.

'경제재개' 美 사망자 9만 넘어...

지난주부터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한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9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확진자도 150만명을 넘어섰다.



18일 실시간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전날 미국의 확진자는 1만9040명이 증가해 152만6813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860명이 늘어난 9만 973명이었다.

이는 두 번째로 확진자가 많은 러시아 28만 1752명의 5배가 넘는 수치다. 사망자 숫자 역시 두 번째로 많은 영국의 3만4636명의 3배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도 미국은 지난주부터 주별로 봉쇄조치를 풀어 경제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미국 언론들은 강력한 봉쇄령을 지속하고 있는 뉴저지·미주리·아이다호주는 신규 환자가 감소한 반면 경제활동을 재개하기 시작한 아칸소, 메인, 텍사스주에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선부

른 경제재개 움직임에 우려를 표했다.

북한, '대테러 활동 비협력국' 리스트 또 올라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미국 정부의 '대(對) 테러 활동'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로 재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북한·이란·시리아·베네수엘라·쿠바를 2019년 기준으로 미국의 무기수출통제법상에 따라 미국 정부의 '대 테러 활동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는(Not Cooperating Fully with U.S. Counterterrorism Efforts)' 국가로 지정하고 이를 미국 의회에 12일 통보했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1997년부터 미국의 '대 테러 활동'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들의 리스트를 발표하고 있다. 북한은 1997년부터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돼 24년 연속 이 리스트에 오르게 됐다.

국무부는 북한을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한 이유로 일본인 납치 사건을 들었다. 국무부는 "1970년대 일본 민간 여객기의 납치에 참여한 4명의 일본인들이 2019년에도 북한에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는 1970-1980년대 북한 기관에 의해 납치된 것으로 여겨지는 일본 국적자 12명의 생사에 대한 충분한 해명을 계속(북한에)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대 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에 대해 국방 물품과 서비스의 판매·허가를 금지하고 있다. 미국은 또 '대 테러 비협력국'의 명단을 미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알리도록 돼 있다.

이번에 눈에 띄는 국가는 쿠바다. 미국 국무부는 2015년 '대 테러 비협력국' 리스트에 마지막으로 오른 이후 5년 만에 재지정됐다.

국무부는 쿠바가 콜롬비아 반군 지도자들을 넘겨달라는 콜롬비아 정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정치적 폭력 혐의를 받다가 도주한 일부 미국인들에 은신처와 식량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AFP통신은 쿠바 재지정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에 대한 압력을 높이고,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쿠바와의 화해 노력에서 벗어나려는 가장 최근 조치"라고 평가했다.

한편, 북한은 국무부의 테러지원국으로도 지정돼 있다. 북한은 1987년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으로 인해 1988년 처음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영변 핵 시설 냉각탑 폭파 등 북·미 대화 분위기가 속속에서 2008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인 2017년 11월 북·미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9년 만에 다시 테러지원국 리스트에 올랐다.

美아시아계, 코로나 사망률 가장 낮아

미국 내 유색인종 집단 중 아시아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고 나타났다.



1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미국 뉴욕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4일 기준으로 아시아계 집단의 코로나19 감염률과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고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사망한 유색인종 가운데 아시아계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122명으로 흑인(265명), 히스패닉(259명) 등보다 훨씬 낮은 것은 물론이고 백인(130명)보다 낮았다. 로스앤

젤레스(LA)에서도 아시아계가 모든 인종 집단 중 가장 낮은 코로나19 감염률을 보였으며, 사망률은 백인보다 약간 높았다.

전문가들은 아시아계가 코로나19에 잘 걸리지 않는 요인 중 하나로 '위챗(중국판 카카오톡)'을 꼽았다. 차이나타운에 거주하는 중국계 미국인 등은 위챗 등 메신저를 통해 중국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코로나19 확산 소식을 일찍이 접해 외출을 자제하는 등 조기에 사회적 거리를 시작했다. 더군다나 17년 전인 2003년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중후군) 대유행을 경험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심이 강했던 영향도 컸다.

또한 미국인보다 마스크에 대한 거부감이 적어 일찍부터 마스크를 쓰기 시작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중국이 코로나19 확산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인식으로 아시아계 대한 인종차별적 공격이 이어지자 아시아계 스스로 사회적 접촉을 줄인 것도 역설적이지만 도움이 됐다는 해석이다.

흑인, 히스패닉 등 다른 인종 집단보다 아시아계가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의료보험 가입률이 높으며, 불법 이민자가 아닌 합법적인 체류자가 많아 의료기관 방문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이유로 꼽혔다.

뉴욕시립대 반 트란 교수는 "아시아계는 코로나19 발병 초기 중국 내 소식을 듣고 경각심을 가졌다"며 "코로나19 확산 후 차이나타운 등에 미국인의 발길이 끊긴 것도 결과적으로는 아시아계의 코로나19 감염사례를 감소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모더나 백신, 모처럼 웃는 미국

미국 바이오기술 기업 모더나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백신 1차 임상시험(1상)에 최초로 성공하면서 전 세계 백신 개발 경쟁에서 선두 자리를 꿰찼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음 달 2상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모더나의 백신이 이르면 올 가을부터 긴급 사용이 가능할 전망이다이라고 18일 보도했다. 모더나는 캐나다 출신 줄기세포 학자인 데릭 로스 허버드대 교수가 동료인 팀 스프링거 교수 등과 손잡고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2010년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mRNA(전령RNA) 기반의 약물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속도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이번 임상시험 결과는 지난 1월 미국립보건원(NIH)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와 함께 백신 개발에 돌입한 지 4개월 만에 낸 성과다.

경제매체 포브스는 "모더나가 다른 경쟁사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건 미 식품의약국(FDA)의 신속심사 대상에 선정됐고, 이로 인해 규제 관련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은 속도라면 모더나는 내년이면 백신 출시를 위한 모든 승인을 받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탈 잭스 모더나 최고의료책임자(CMO)도 CNN에 "3차 임상시험까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즈음 코로나19 백신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백신이 연내에 나올 수도 있다는 기대감에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권시장은 일제히 랠리를 연출했다. 미국 다우존스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3.85% 오른 2만4597.37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1000포인트 이상 오르기도 했다. 이에 힘입어 국내 코스피지수도 19일 2.25% 급등한 1980.61을 기록하며 두 달여 만에 1980선을 돌파했다.

올 초 19달러 수준이던 모더나의 주가는 이날 급등으로 주당 80달러를 기록했다. 모더나의 투자 수익률은 지난 10년간 2만7500%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신만 기다릴 여력 없다" 문 여는 유럽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관광산업 비중이 큰 유럽 국가들이 해외 여행객에게 문을 열기 시작했다.



이탈리아는 다음 달 3일부터 국경을 개방하고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역내 자유로운 인적·물적 이동을 보장한 생겐조약 가입국에 한해 해외 여행객을 받기로 했다. BBC방송 등은 16일 오후 추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봉쇄 완화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콘테 총리는 "우리는 국경을 열면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늘 수도 있다는 '계산된 위험(calculated risk)'에 직면해 있다"면서도 "하지만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영원히 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탈리아는 백신이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을 여력이 없다"면서 "심각하게 망가진 경제와 사회 구조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일부터 EU 국가에서 이탈리아로 들어오는 여행객들은 2주간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탈리아는 오는 25일부터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등을 열고 다음 달 15일부터는 영화관 영업도 재개한다.

그리스 정부도 7월 1일부터 외국 관광객의 입국을 전면 허용할 방침이다. 그리스는 이날 코로나19로 폐쇄했던 전국 500여개 해수욕장을 일제히 개장했다. 그리스는 지난 4일부터 소매점 영업을 재개토록 했고, 17일부터는 미사를 다시 시작했다. 18일엔 아크로폴리스를 비롯한 전국 야외 유적지가 문을 연다.

그리스에서 출발하는 유럽 내 국제 항공편 운항도 재개 수순에 들어갔다. 프랑스 파리-아테네 노선 운항이 23일 재개되는 것을 시작으로 이달 말까지 독일 뮌헨과 프랑크푸르트, 스위스 취리히와 제네바, 벨기에 브뤼셀 등으로의 운항도 차례로 정상화될 예정이다.

봉쇄 이후 유럽의 경제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이탈리아의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 대비 9.1%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엔 관광산업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이탈리아에서 관광 수입은 GDP의 13%를 차지한다.

유럽 각국이 속속 국경 개방에 나서고 있지만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우려도 상당하다. 예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는 지난 15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여름 휴가는 국내에서 보냈으면 한다"며 해외여행 자체 권고를 8월 20일까지 연장했다. 앞서 독일도 해외여행 주의보를 6월 14일까지로 연장했다.

중남미 코로나19 확진자 50만명 훌쩍

중남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8일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 집계계를 종합하면 중남미 30여 개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52만4천여 명이다.

점점 증가세가 빨라져 확진자 40만 명에서 50만 명까지 가는 데 나흘밖에 걸리지 않았다. 사망자는 총 2만9천541명으로, 3만 명에 가까워졌다.

중남미 전체 확진자와 사망자의 절반가량은 브라질에서 나왔다. 브라질의 확진자는 24만4천52명, 사망자는 1만6천201명이다. 날마다 증감은 있지만 최근 하루에 1만 명가량씩 확진자가 추가되고 있다.

브라질은 코로나19 대책을 책임져야 할 보건 장관이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과의 갈등 속에 두 차례나 교체되는 등 혼란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브라질 다음으로 심각한 곳은 페루다. 두 달을 넘긴 봉쇄 속에서도 페루의 확진자는 9만2천 273명으로, 10만 명에 가까워지고 있다. 사망자는 2천648명이다.

반교권주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일어난 16세기 종교개혁은 일이다. 중세사회로부터 근대사회로 탈바꿈하던 시기에 다양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겨났고 진행되었다. 교회는 세상 안에 존재하기에 세상이 변화를 경험할 때에 교회도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러나 직접적인 원인은 그 당시 로마가톨릭 교회가 개혁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있었다는 것이다.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 즉 세상을 향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주어진 사명을 저버리고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면, 교회 안으로 세속의 요소가 강하게 침투하여 부패가 시작된다. 중세 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상 속에 두신 근본적인 목적을 망각한 듯하였다. 대부분 성직자들의 관심은 매우 인간적인 일들에 대해 자신들의 욕구를 채우는 일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서유럽의 각 도시마다 성당과 수도원이 있었다. 신자들은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에 걸쳐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삶의 패턴 속에 살아갔다. 자연히 그들은 형식적이며 피상적인 신앙을 지니게 되었다. 신앙의 중세를 마감하고 근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겨난 사회 전반의 혼돈은 기독교 세계관에 사로 잡혀있던 그들에게 영적 도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신실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 하던 성직자들의 영향 아래 있었던 신도들은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었다. 이에 반하여 이미 성직자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한 신도들은 그들을 향하여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성직자들의 부패를 지적하고 알리자, 그들 사이에 번져있던 '반교권주의' 또는 '반성직주의'가 일종의 대중운동으로 번져나갔다.

중세교회 성직자들과 신자들의 관계는 전통적으로 철저한 수직 구도에 놓여있었다. 교황, 주교, 그리고 사제 모두 하나님의 입장에서 최인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편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다. 성직자들이 어떤 인격을 지녔고 어떤 삶을 사느냐는 2차적인 문제이고, 일단 그들이 지닌 영적 권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수직 구도를 비평 없이 받아들였던 대중이 변했다. 성직자들이 교회의 전통과 교회법을 앞세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하는 동시에, 신도들을 억압하고 있다고 확신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반발심이 확산되고 고조되면서 성직자의 권위적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 신앙의 자유를 얻으려는 열망이 생겨났다.

총체적 타락

성직자는 마태복음 19장 10-12절에 근거하여 결혼 포기라는 의무를 지켜야 했다. 이는 복음 전파 사명에 전무하기 위함이었다. 중세를 지나면서 초대교회부터 지켜온 불변의 교회법을 어기는 성직자들이 생겨났다. 중세 후기를 맞아, 성직자들의 결혼이 매우 흔한 일이 되었다. 또한 내연관계로 맺어진 비윤리적 행태도 심각한 수위에 이르게 되었다. 물론 비밀스럽게 진행되었지만, 결국 총체적 타락상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밖에 없었던

개혁을 부르짖던 자들이 수도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청빈과 검소, 그리고 선행을 강조하였던 수도원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교회개혁에 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중세 말기 수도원은 이전과 달리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타락한 상태에 놓여있었다. 수도원은 이전에 지녔던 거룩한 모습을 오래 전에 상실하였다. 부가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수도사의 엄격한 규율과 규칙적인 생활이 나태하고 탐욕적인 삶으로 대체되었다. 일부 수도사들과 수녀들 사이에 출생한 유아들을 살해하는 일도

년에 독일의 요하네스 구텐베르크(Johannes Gutenberg, 1400-1468)가 금속활자를 개발한 이후에 가능해졌다. 그는 인쇄업을 운영하면서 원근반환 소송에 매달려 파산을 경험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 또한 자신이 이뤄낸 엄청난 역사적 발명으로 인해 어떻게 역사가 바뀌었는지도 모르는 채 눈을 감았다. 그러나 그 후로 세상이 달라졌다.

독일을 포함한 유럽 전역에 많은 인쇄소가 설립되었다. 넘쳐나는 인쇄물 인쇄 많은 지식이 빠르게 전파되면서, 유럽의 질서에 근본적으로

성직자들의 타락으로 인해 무엇보다 종교 자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 교회가 제 몫을 감당하지 못하자 기형적인 신앙이 성도들을 현혹시켰다. 중세 말 유럽에 전염병이 창궐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사망하자 매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일이 있었다. 세상의 종말이 도래했다고 외치는 자들이 생겨났다. 또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이라며 광적인 신앙으로 유혹하는 자들도 있었다. 미신적 신앙이 판을 쳤고, 신자들은 성인 축일, 성인순례, 성지순례 등 피상적 신앙에 매료되었다.

성직자의 무관심, 무지, 그리고 무능으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던 교회를 향해 개혁을 부르짖는 자가 나타났다. 데시에라우스 에라스무스(Desiderius Erasmus, 1466-1436)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지성적인 인물로 인정받고 있었던 인문주의자였다. 그는 그리스도를 닮은 내적 경건을 강조하였던 것은 '공동생활규제단'의 영향을 받았으며, 사제였던 그는 자신이 신학자임을 언제나 잊지 않았다. 교회는 반드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확신하며 1516년에 그 유명한 '헬라어 신약성경'을 출판하기도 하였다.

그는 자신이 속물이라고 여기던 성직자들의 부패와 타락상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 그 결과 1511년에 '우신예찬'이란 연설 형식의 책을 저술하였다. 그는 노골적인 표현대신 풍자적으로 실상을 고발하였지만, 성직자들의 죄악상을 주저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지적하였다. 가톨릭이 금서목록에 올려놓은 이 책은 에라스무스의 풍부한 지식과 천재성을 담고 있다.

그는 교회의 타락을 바라보며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였다. 시기적으로 그의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다. 그는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걸었던 길에 동참하기를 거부하고, 구교를 떠나지 않았다. '우신예찬' 그대로 표현된 것처럼 관용과 중용을 중시하던 사상가였기 때문이다.

한일 그가 다른 초기 개혁가들과 함을 합치지 못한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그는 자신의 위치에서 타락한 중세 말 교회의 개혁을 위해 훌륭한 업적을 남긴 자이다. 무엇보다 그가 저술한 '우신예찬'을 통해 성직자의 총체적 타락상이 급속도로 유럽 전역에 퍼지게 되었다. 이미 반교권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흔들리던 대중은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적 교회와 신앙의 회복을 주장하며 외치는 소리를 환영하였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개혁의 땀방울을 흘렸던 주연과 조연, 겉으로 드러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교회 안의 일과 밖의 일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는 역사의 주인공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해 나가시는 방법이다.

covenantcho@yahoo.com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10)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것은 교회 자체적으로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킬 수 있는 통제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성직 매매와 세습을 통해 소명과 상관없이 고위직을 맡은 성직자들은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과 교회를 정화시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었다. 그들은

벌어졌다. 대형 수도원은 봉건 사회의 경제 중심지로 탈바꿈하였다. 귀족들이 수도원을 재산 도피 장소로 사용하였고, 수도원장은 지역의 권력자와 밀착하여 이권을 챙기기도 하였다. 수도원이 운영하는 학교와 병원 등은 봉사의 차원보다 수익을 목적으로

변화가 찾아왔다. 이전에는 대부분 책이 필요되었기에 값이 비싼 이유로 오직 수도원이나 감부만 책을 장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책이 다량 생산되면서 개인도 소장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의 생각을 담은 글이 보급되면서 지식의 교환이 활발하게 이뤄지게 되

중세 말 교회의 총체적 타락은 영적 무감각의 문제 구텐베르크성경과 우신예찬 통해 개혁자들 힘 얻어

교황으로부터 시작하여 정치적으로 유리한 입지에 서는 것과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는 일에 매달려 있었다.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많은 성직자들이 미사에 사용하였던 라틴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 뿐 아니라 성경에 지식이 없는 관계로 가르치는 업무를 기피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일부는 아예 대리사제에게 업무를 맡긴 채 사역 장소를 떠나 사치스런 삶을 즐기는데 몰두하였다. 그 중 막강한 힘과 재력을 지닌 고위 성직자 중에는 각종 오락을 즐기고 여성들을 가까이하는 자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주교직을 귀족들이 독점한 이유로 쉽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중세교회의 신앙적 바탕이 되어왔던 수도원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 이 질문의 정답성은 중세 수도원운동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세기부터 교황이하 성직자들이 온갖 부패와 악행을 저지르면서 교회가 타락하자, 교회의

는 등 세속 기관으로 변질되었다.

중세 말 교회의 총체적 타락이 불러온 진정한 문제는 영적 무감각이었다. 죄악을 제어하는 힘을 상실한 교회는, 성직자들에게 자신들을 정당화할 수 있는 제도를 고안하였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법으로 금지된 사실을 알면서도 비밀스레 결혼한 사제들은 정기적으로 '속죄비'를 지불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교회는 성직자의 결혼을 금했지만, 돈을 지불하는 자에 한하여 용서할 길을 열어준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그들 사이에 정해진 가격이 있었으며, 제시시간에 그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지 못하여 결국 정적 당하게 되는 우스운 일이 벌어졌다.

인쇄물

목판과 활판 등의 초기 인쇄술은 대부분 동양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대량인쇄물 출판은 1445

었다.

1452년부터 3년에 걸쳐 '구텐베르크 성경'이 인쇄되었다. 그의 인쇄술로 인해 가장 큰 도전을 받은 것은 교회의 성직자들이었다. 그들은 성경 지식을 교회의 전유물이라고 간주하고 자신들의 체제를 유지하는데 사용하였다. 교회의 전통과 교리를 독점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장에 맞도록 해석하고 가르침으로서 신도들을 우매한 대중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인쇄된 성경이 대량으로 보급되면서 개인들이 성경의 진리를 직접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루터와 칼빈과 같은 대표적인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자국민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술 발명은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버금가는 역사적인 변환이었다.

우신예찬

Worldwide Church Directory with logos and contact info for various churches like Galborick, Mongo, Bexk, Benel, Boston, Salut, etc.

리더십 코멘터리 (110)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

질서 변화와 새로운 사회적 기준

진정한 리더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

뉴 노멀(New normal)이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부각되는 표준을 말한다. 원래 이 용어는 급변하는 경제적 현실을 반영해서 등장한 경제 용어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사회적 용어로 새로운 사회적 기준을 의미하는 키워드로 부각되었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뉴 노멀이란 기존의 산업화와 정보화 시대가 만들어놓은 일체의 사회문화적 표준을 대신하는 새로운 표준을 따라야 한다는 사회적 명령어가 된다. 그렇다면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교회의 변화를 일으킬 뉴 노멀은 무엇일까?

세계 경제의 변모와 대공황

중세기를 강타했던 흑사병은 유럽 총 인구의 30-60%를 죽음에 몰아넣었다. 당시 유럽의 팬데믹 공포는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사람들은 흑사병 공포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애꿎은 여자들을 마녀로 몰고, 유대인들을 흑사병의 원흉으로 여겨 유대인 혐오가 극에 달했다. 분명한 사실은 흑사병 이전과 이후, 세상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점이다. 경제 시스템은 전통적 자본주의에서 근대 자본주의의 체제로 전환되었다. 정치 시스템은 봉건군주제에서 법치주의가 고개를 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유럽 전체를 휩쓸었던 전염병은 유럽 역사의 대

대한 전망, 신학적 성찰과 목회적 대안 그리고 목회전략을 고민할 때이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교회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자기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의연해야 한다. 세상을 향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탁월함과 구별됨을 보여줘야 한다. 애석하게도 오늘날의 교회는 세상과 아무런 구별됨이 없이 세상과 마찬가지로 혼란과 불안에 빠져 있다. 그 대표적인 증거로 신앙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예배를 너무도 쉽게 타협하고 있다. 우리는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위로와 안식을 추구해야 한다. 주님께서 공급해주시는 평안과 안식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의연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물론 교회가 전염병의 발원지라는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 이 문제는 각 교회가 예배 시간에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식사 조리 금지, 철저한 방역 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최근에 교회를 통한 감염률이 1.5%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그 증거가 된다. 예배가 결코 질병 감염 요인이 될 수 없으며, 예배당은 가장 안전한 장소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교인들의 예배출석률은 50%에서 적게는 22-30%로 급감하고 있다. 주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천들이 과연 무엇을

세상과 다른 교회... 탁월 구별된 정체성 회복에 집중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세우는 데 힘써야

전환점(Great Turning Point)이 되었다.

코로나가 교회의 본질을 깨우쳐다

주일성수 신앙이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사태로 예배를 중단한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반발도 있었다. 서울 장중동 경동교회는 모범적으로 2월 말부터 예배를 중단했는데, 한국전쟁 때도 예배를 거르지 않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예배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에 대해 일부 원로 교인들이 안타까워했다는 후문이다. 코로나사태 이후 개신교회는 이전의 교회와 분명히 달라질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 개신교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1%가 주일 예배 중단에 찬성했다.

주일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본질은 과연 무엇이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또한 진정한 공동체의 모습은 어떠한가 하는가? 코로나사태가 세계 역사뿐 아니라 교회사에 큰 획을 긋고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는 외향적으로 정치, 사회, 교육, 문화 및 종교에 총체적 변화를 예고한다. 지금은 영적 리더들이 기도하며 인류 역사의 급박한 변화 속에서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 교회의 본질과 미래에

의지하며, 무엇을 통해 위로와 평안과 안전을 추구했는지 묻고 싶은 통계이다.

진정한 예배자를 세우라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교인 숫자보다 정체성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무엇인가? 기독교 신앙은 다른 어떤 것으로 얼마든지 대체할 수 있는 문화 활동이 아니라 인간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이자, 예배 없는 삶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는 일이 가능하려면 예배를 위해 고난 받는 일도 얼마든지 감수할 수 있어야 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교회는 비록 적은 수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를 세우는 데 힘써야 한다. 영적 리더에게 포스트코로나는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기회로 주신 하나님의 섭리이다. 말씀과 기도로 예배자들을 한 명씩 세워나간다면 얼마 되지 않아 건강한 교회가 되고 제2의 팬데믹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의연히 대처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정과 평안을 주는 정체성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sondongwon@gmail.com

일상칼럼



변명혜 박사
(아주사범사범대학교 교수)

기다림

코로나바이러스로 집에 머물게 되면서부터 긴 기다림이 시작되었다. 그 기다림은 일상으로의 복귀에 대한 기다림이다. 감염에 대한 아무 염려 없이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웃고, 식사도 하던 시절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기다림이다. 보고 싶은 학생들을 강의실에서 만나고 싶은 기다림이다. 마켓에 갈 때도 카드 손잡이를 클로락스 천으로 닦고 집에 돌아와서는 사은 물건 하나하나를 다시 소독해야 하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고 싶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에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함께 한다.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 이후 우리가 기다리는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 긍정적인 미래가 아닐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이런 상황에서 소망을 품고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또한 기다림에는 소망하는 바를 이룰 수 있는 대상에 대한 믿음이 포함된다. 아쉽게도 미국정부는 초기 바이러스 대처에 실패했고 아직도 비현실적인 정도로 낙관적인 면도 있다. 정부를 향한 신뢰는 이미 무너져버렸다.

하루하루 큰 변화 없는 날들을 보내며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을 고대하는 동안 기다림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 며칠 전 딸이 같은 교회친구가 보낸 비디오를 보여주었다. 엄마의 어린 아들에 대한 인내심 혹은 순종 테스트 비디오였다. 엄마가 꼬마에게 맛있어 보이는 간식을 주고는 "엄마 화장실 다녀올 때까지 기다려"라고 사라져 버렸다. 네 살 정도 되어 보이는 꼬마는 너무 먹고 싶은 표정으로 간식을 한 번 쳐다보고는 마치 유혹을 피하려는 듯 엄마가 간 쪽을 바라보며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다시 한번 간식을 쳐다보고는 애써 참고 있는 착한 그 꼬마의 좌절된 표정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모른다. 잠시 후 엄마가 나타나고 꼬마는 마침내 행복한 얼굴로 간식을 먹었다. 우리가 이 꼬마처럼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기다려야 하는 시간을 잘 참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성경에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온다.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다. 다윗의 시 중에는 그가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은혜를 감사하는 시가 여러 편 있다. 코로나바이러스 보다 더 직접적으로 다가왔을 죽음의 어려움을 몇 번씩이나 헤치고 나온 다윗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리라고 권면한다.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기다림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 해도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그분의 선하심을 알기 때문이다. 기다린다는 것은 신뢰한다, 기대한다, 인내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그 분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인내하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다. 인내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인내가 성령의 열매의 한 특성이기도 한 것 같다. 아브라함은 기다리다가 지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는 연약한 우리 인생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기다리다가 조급해져서 이스마엘을 낳는 인간적인 선택을 했기 때문이다.

긴 기다림 앞에서 쉽게 좌절되고 우리 스스로가 다스릴 수 없는 연약한 마음을 하나님께 강하게 하셔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신다. 다가올 미래를 알 수 없는 불안한 시대를 앞에 두고 있다. 경제적인 위협이 우리 코앞에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그분의 역사하심을 기다린다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안과 밖의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환경을 넘어선 기쁨과 힘을 찾은 선지자 하박국을 기억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lpyun@apu.edu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미연합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영아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 521-0991, www.thanksgivingchurch.com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2620	남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오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 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남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후 1:3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 227-1400 / www.youngnak.com	남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차성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30(영성)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Tel: (213) 388-7101, (F) (213) 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남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영성)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묵성(월-금): 오전 5:30 토요일새벽찬양예배: 오전 6:30 토요일한국교회: 오전 9:00 Tel: (562) 691-0691, Fax: (562) 691-0698, www.nachimbu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714) 481-2779 / facebook.com/src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젊은이예배: 오후 1:20 영아(침소-KDC, 링컨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동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 Tel: (310) 719-2244, www.dkpc.org 15411 W.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 559-7728 (전화 배스 전용), Tel: (213) 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 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수요일예배 장소) Office: 106 S. Hobart St. Los Angeles, CA 90004 (수요모임장소)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새벽: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 오후 7:30 Tel: (213) 381-2202, www.mpci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오전 6:00(토) Tel: (310) 749-4756 25402 S. Western Ave. Lomita Ca. 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 (562) 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효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양예배: 오전 9:15, 11:30 영아예배: 오후 1:30(수요일),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 854-4010 / bet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 김요셉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323) 737-3009, Cel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타지역원 원장: 박은송 목사 (LA)복음전파교회(현동목사) 신명사역(월-금) 오찬(아사-오후 4:00분) 사역대상: 1. 여성사역 2. 2.3세대 영성훈련 사역: 1. 회복사역 2. 가정사역 3. 상담사역 4. 네트워크 사역 http://www.elpista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가게기도센터: 365일 24시간 모은 Tel: (714) 446-6200, www.gracemj.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세운교회 담임목사 :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금요성경연구회: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방회: 오후 7:20(금) Tel: (310) 325-4020, www.junimchurch.com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 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영성)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714) 646-9259 www.so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ely.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주일 대 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핼(PIM)선교회, 교회 담임목사 : 이훈우 주일영양예배: 오전 11:00 한미연합: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mission1004@gmail.com 2533 Honouliuli Ave # 4 Montrose, CA 9102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 김익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수요일: "의성령이 임하여"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 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특/별/기/고

“선교사 관점에서 본 코로나바이러스19 비상사태가 가져온 세계선교현장 변화와 한국인 선교사의 삶과 사역 방향 “ (하)



강성철 선교사(브라질)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대유행병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대유행병이 발생하는 이유와 선교사역지에서 취할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코로나-19는 국가적으로 다루어야 할 만큼 그 영향력이 충격적이고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감염의 증세가 나타날지 아무도 예측하기가 힘들다. 치료방법도 백신도 불확실하며 통제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늘 불안하다. 언제 멈출런지도 모르기 때문에 패닉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이 일어나는가?

- 1)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볼 수 있다.
2)말세의 징조일 수 있다.
3)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일 수 있다(하나님의 섭리).
4)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는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다.
5)세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어려난 현상이다.

이제 세계적 사건이 되어 버린 코로나 사태를 선교사인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성경적인 관점에서 코로나 19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메시지를 받아 들여야 한다. 누가복음 13장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가 우리 눈앞에 다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선교사의 사명은 세상 끝까지 수행해야함을 마태복음 24장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죽은 이들의 죽음은 더 죄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못 박으심이다.

마태복음 16장3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지금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우리 선교사들은 성경적으로 성찰하

여 이 사태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구속사 성취의 한 수단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 코로나 19의 발생도, 진행도, 해결도 하나님의 처방인 성경말씀 앞에 솔직하고 겸손하게 설 때만 바로 볼 수 있다.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세계

연재양은 하나님의 징계라 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지금 우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혹자가 말하듯 개인적 비극이나 재앙이 반드시 그 사람의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없다. 혹시 죄 때문이라고 할지라도 희생자의 죄가 다른 사람들

의 죄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사망이나 아픈 것이 없기 때문이다(계21:4).

6. 한국선교는 미래를 위해 무엇을 대비해야 할까?

언젠가 코로나19는 지나간

다. 홍수, 태풍, 쓰나미가 지나간 후는 이전 상태와는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코로나 19가 지난 후 선교지 상황과 사역의 현장은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 1)경제 대공황이 올 수 있다.
2)가치관의 변화가 올 것이다.
3)경제구조와 사회변화로 말미암아 공동체 조직의 변화가 온다.
4)4차 혁명의 중심부에서 살아가면서 더 큰 위기가 올 것이다.
5)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것이다.

또한 파송교회와 성도들의 의식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를 체감할 것이다. 파송교회의 형편도 교단본부 또는 선교행정 본부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한도수 선교사는 앞으로 미래 한국선교는 단순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말한다. 그래도 분명한 것은 선교현장에는 가까이 할 영혼들이 있고 할 일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나가는 말

마태복음 24장13절 이하에 나오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나타날 징조가 우리 눈앞에 다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선교사의 사명은 세상 끝까지 수행해야함을 마태복음 24장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고 있다.

코로나바이러스19도 말세지말의 현상중 하나이다. 전도서 8장17절 말씀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고 싶어도 능히 알지 못한다” 라고 했다

전도서 3장15절에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했다. 출애굽 재앙도, 다윗왕의 잘못으로 인한 재앙도, 후사병도 콜레라도 사스와 메르스도 다 지나 갔듯이 코로나19도 지날 것 같다. 신앙의 시각으로 오늘의 비상사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손길을 펼쳐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하자.

kangsungchuel@gmail.com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3)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목사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해도 하늘에 있는 그분은 더욱 막강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라고 썼다. 그린달이 이렇게 여왕을 비판하자 여왕은 그린달로부터 대주교권을 박탈했다(배한국, 미국 청교도의 사상의 기원과 변천, p.67).

1583년 존 윅기프트(John Whitgift)가 그린달을 대신하여 캔터베리 대주교가 되자 런던의 주교 존 에일머(John Aylmer) 등과 함께 감동주의를 내세워 또 다시 청교도를 박해가 시작된다.

특히 1587년 엘리자베스 1세가 로마가톨릭 편에 섰던 스코틀랜드 메리 여왕을 처형하자, 메리 여왕의 남편이었던 스페인의 펠리페 2세(Felipe II de Habsburgo)가 영국에 전쟁을 선포하면서 영국과 스페인 사이에 전쟁이 시작되었다. 1588년 7월 19일 스페인의 무적함대(The Invincible Armada)가 초승달 모양의 깃을 이루며 도버 해협으로 향하여 진격하던 중 강풍으로 진영이 분산되자 그 틈을 타 영국(함대)군이 공격함으로써 대승을 거두었다(오터교, 청교도이야기, pp.20-21).

마치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의 명량해전이 연상되듯 영국 함대가 세계최강 스페인의 무적함대(The Invincible Ar-

는 프란시스 웰스햄 경이 관직을 잃었고, 토마스 카트라이트와 10여명의 청교도가 체포되어 고등종교법원에 서게 된다. 이와 같은 고난의 시기에 캄브리지대학교의 윌리엄 퍼킨스(William Perkins)가 앞장서서 청교도 운동을 이끌어 발전시켜 나갔다.

알렌 카든(Allen Carden)은 “종교문제에 대해 철저히 무관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만족할 수 없는 중용(Via Media), 또는 엘리자베스 결정(Elizabeth Settlement) 등으로 다양하게 알려진 신앙 타협이었다. 영국은 1570년 엘리자베스에게 교황이 파문을 내릴 정도로 신교적이었으나 독실한 개혁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는 너무나 로마교회 회적이었었다”고 황제교황주의(Caesaropapism)를 추구한 정치가 엘리자베스 1세의 종교정책을 평가했다(Allen Carden, 청교도정신, p.18).

한편 여왕은 엘리자베스 1세 시대를 국민문학의 황금기로 만들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문학과 경험론 철학의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이 이 시대의 대표하는 지성인이요, 성과였다. 당시 영국 민중들은 집안에 악기를 갖추어 문화 활동을 즐길 정도로 엘리자베스 1세 시대의 영국문화는 꽃을 피웠다. 또한 처녀 여왕(The Virgin Queen) 엘리자베스 1세는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는 세계 최고의 대영제국을 건설하며, 아메리카를 포함하여 해외 식민지를 계속 확장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독신인 엘리자베스 1세의 이름을 딴 버지니아라는 이름의 식민지를 개척하였고, 후에 일본의 동양척식주식회사(Oriental colonization Company)가 모방한 것으로 알려진 식민지 경영기관인 동인도회사(최초로 1600년에 영국 상인들이 연합 창설)를 통하여 그 세력을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잉글랜드 왕국이 강성한 대영제국으로 발전하는 데 큰 발판이 되었다. 역사가들은 이 시대를 ‘엘리자베스 시대(Elizabethan era)’라고 부른다.

kimjoyh@gmail.com

4)엘리자베스(Elizabeth I, 1558-1603)의 중용(Via Media) 정책

1558년 피의 여왕 메리가 죽자 그의 여동생 엘리자베스가 왕위에 취임했다. 그녀는 1559년 헨리 8세가 1534년에 발표한 수장령을 다시 반포하면서 교회와 국가를 동시에 다스리는 강력한 군주가 되고자 했다. 그것이 곧 당시 제국주의자들이 바랬던 이른바 황제교황주의(Caesaropapism)였다(서청원, 청교도 신학과 신앙, pp. 33-34).

그녀는 45년간 재위하면서 종교중용(Via Media) 정책을 펼쳤다. 즉 교회 예전과 의식은 가톨릭교회 입장을, 신학은 칼빈주의적 전통을 추구하였다. 이에 루이스 스피츠는 종교개혁사(The Reformation)에서 “이 기간 동안 영국은 완전히 프로테스탄트가 되었을 뿐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국가들의 지도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했다.

1559년 그녀는 수장령을 선포하여 자신이 영국교회의 머리라고 선언하였으며, 1549년에 출판된 공동기도서를 영국교회가 받아들일 것으로 명하고, 에드워드 6세의 제 2기도서를 수정하여 발행하였다. 여왕은 1563년 42개조 신조를 개정하여 39개조 신조로 만들었고, 1571년에는 설교 지침서를 간행하여 설교자들의 설교 모범으로 삼게 했다. 예배 참석을 국민의 의무로 간주하여 주일이나 성일에 시행되는 교회의식에 한 번 빠지면 누구나 노동자의 일주일 임금에 해당하는 1실링의 벌금을 물도록 했다.

영국교회는 헨리 8세 때, 수도원의 몰수와 종교적 기관의 해체로 인하여 그 하부에 감독이나 교관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는 교회를 장악하지 않고는 국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영주들이 가진 교관을 감독들이 소유하게 하여 교관을 중앙 집권화 함으로써 교회

를 장악하고자 했다. 이러한 여왕의 정책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의 반발을 사서 리스터의 백작(Earl of Leicester), 월터 마일드메이 경(Sir Walter Mildmay)과 프란시스 윌싱햄 경(Sir Francis Walsingham)과 같은 고위층들은 여왕의 교회정책을 비판하는 반면에 종교개혁자들을 후원했다(오터교, 청교도이야기, pp.16-17).

엘리자베스 시대에 카트라이트(Thomas Cartwright)는 장로주의를, 로버트 브라운(Robert Brown)은 분리주의(Separatism, 회중과 청교도)를 제창했다. 메리의 박해를 피해 대륙에 피신하였던 800여명의 개혁자들이 대거 귀국했다. 그들은 대륙교회, 특히 칼빈의 제네바 교회를 모델로 하여 교회와 사회 전반을 하나님 말씀으로 개혁하고자 하였다.

토마스 풀러 박사(Dr. Thomas Fuller)는 그의 저작 ‘교회사’에서 청교도란 말이

(Puritans)라고 칭했다.

1570년대 청교도 운동은 구체적인 영국 국교회(성공회) 개혁으로 눈을 돌렸다. 즉, 청교도들은 교회개혁의 우선순위를 영국 국교회 안에 남아 있는 미신(迷信)적인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삼았다.

그들은 영국교회 안에서 시행되는 십자가 성호를 긋는 행위, 산파에 의해 유아세례, 견신례, 성찬상 앞에서 무릎을 꿇는 행위, 성찬식에 사용한 떡을 치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혀에 대한 청원이 계속되자 여왕은 대주교 파커에게 청교도 박해를 다시 명령했다. 그 결과 많은 청교도 목사가 목회직을 잃었고, 박해를 피하여 다시 대륙으로 피신하였다.

1575년에 매튜 파커가 사망하자 엘리자베스 여왕은 에드먼드 그린달(Edmund Grindal)을 캔터베리 대주교로 임명했다. 청교도들은 그린달을 동지로 보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뜻 깊은 교회개혁의 때

국교회 내 남아있는 미신적 요소제거가 교회개혁 우선순위 엘리자베스1세 정책은 황제교황주의, 교회 국가 모두 장악

최초로 사용된 연도를 1564년으로 추측했다. 그 이유로 교회법으로 영국의 감독들이 기도서와 의식들, 그리고 교회의 규율에 서명하도록 강요하자 거부한 사람들을 악명 높은 청교도라고 낙인 찍는 데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까다로운 사람들’(Precisians), ‘청교도’(Puritan), ‘장로교도’(Presbyterian)라는 용어들은 모두 대감독 파커(Parker)가 이 당시에 그의 문헌들 속에서 똑같은 한 집단을 각기 다른 별명으로 부른 용어들이다 (James Heron, 청교도 역사, p. 26). 성공회 당국은 이와 같은 성경 중심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하던 이들을 까다로운 사람들(Precisians), 또는 청교도

료제로 환자에게 주는 것, 해산 후 여인의 정결예식, 사제나 사면과 같은 단어의 남용, 성자들의 날을 기념하는 것, 예수라는 이름이 불려질 때마다 무릎 꿇는 행위는 미신적이며, 인위적이며, 비성경적이라 주장했다.

이와 같이 청교도운동이 강화되고, 감독(주교)주의가 몰락하자 위협을 느낀 엘리자베스 여왕은 목회자의 복장제도를 강화함으로써 교관을 회복하기 위해 캔터베리 대주교에 매튜 파커(Matthew Parker)를 임명하고, 모든 성직을 맡은 자는 성직자 복장을 착용하라 명령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목사들이 이에 반대하므로 엘리자베스의 감독(주교)주의 복원 노력은 실패했다. 이렇게 개

가 왔다고 믿었다. 청교도주의에 대한 엘리자베스의 혐오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직자의 설교 기능을 장려했고, 제네바 성경(Geneva Bible, 파커는 제네바 성경의 칼빈주의적 주석을 싫어했다)이 영국에서 인쇄되었으며 그린달은 목사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열심이었다(Allen Carden, 청교도정신, pp.19-20). 이와 같이 그는 청교도들 집회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매우 호의적이었다.

특히 그는 여왕이 “그(청교도)들을 탄압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 대신 그는 여왕에게 “기억하십시오, 여왕 폐하! 당신은 생명이 유한한 존재이며... 그리고 비록 당신이 막강한 군주라

다) 130척을 격파, 대승을 거두면서 영국이 대서양의 해양권을 사실상 장악한다. 그 이후 해양 대국 스페인의 지위는 경(Geneva Bible, 파커는 제네바 성경의 칼빈주의적 주석을 싫어했다)이 영국에서 인쇄되었으며 그린달은 목사의 교육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도 열심이었다(Allen Carden, 청교도정신, pp.19-20). 이와 같이 그는 청교도들 집회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매우 호의적이었다.

이 전투 후에 다음과 같은 비문이 적힌 대형 메달이 만들어졌다. “신이 입김을 불자 그들은 흩어졌다”(God blew and they were scattered). 엘리자베스는 이렇게 스페인과의 전쟁 대승리 후 그 자신감으로 도취되어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 청교도에 대한 박해를 더욱 강화하였다. 수많은 청교도 지도자들이 숙청되었다.

1588년 리스터 백작, 1589년 월터 마일드메이 경, 1590년에

알기쉬운 IT 칼럼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IT전문선교사)

Zoom 사용시 발생하는 문제

교회에서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방이 중보기도실인데 문득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3월입니다. 이미 5월로 접어들었기에 두 장을 뜯었습니다. 이 방의 원 주인이신 권사님들의 시간이 4월 한 달이 삭제된 느낌이 들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리라 믿지만요. 사람들은 참 적응을 빨리 합니다. 그래야 살아남기 때문인데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면 또 거기에 적응할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손에는 이미 성도의 교제, 성경공부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이미 많은 목사님들이 아시고 있기에 이미 시작된 교회가 많을 것이라 믿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 너무 빨리, 별 문제없이 이를 적용해가고 있습니다. 어려울 것이라 지레 겁을 먹고 주춤하시던 어른들도 한번 해보니 이거 별거 아님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있습니다. Zoom에 대한 부정적 이야기가 있음에도 여전히 화상회의 방식에는 Zoom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Skype도, 이제 시작하려는 Facebook도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 형편에 가장 맞는 것을 결정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Zoom을 이용하시면서 발생되었던 문제를 말씀드리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프로그램 설치: 아직도 이게 어려운 분들이 많았습니다. 스마트폰으로도 Play store나 App Store에 대해 모르는 분도 있었고 특히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ID와 패스워드를 몰라 설치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히 컴퓨터에 대한 개념이 없어 컴퓨터에서 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았습니다.

대기실: Host의 준비 시간을 주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기실을 운영하고 개설 것입니다. 그런데 누르지만 하면 목사님의 얼굴이 나오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이 문제가 된 줄 알고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이크: 물론 호스트가 입장시 마이크 off를 해놓으셨을 테니 참가자가 들어올 때 마이크 소리는 나지 않지만 강의시간에 마이크를 켜놓아 아주 많이 방해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는 자신이 말을 할 때만 켜는 방법을 꼭 지시시켜 주셔야 하고 어디서 켜고 끄는지 확실하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솔직히 Host의 입장에서 강의 중 이를 찾아 마이크를 끄다보니 리듬이 많이 깨졌습니다.

화면공유: 교육 중에는 이 공유를 잘 이용하시면 아주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파워포인트 등으로 만들어진 자료를 미리 준비하셔야 아주 효과적이고 또 교재를 미리 혹은 나중에 배포하면 재교육이나, 복습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나갔다 다시 들어오기: 교육 중 나갔다 들어오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이에 대한 처리가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유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단체방: 교육이나 교제는 주로 단체방을 이용하여 공지가 되고 또 초대장도 이를 통해 발송될 것입니다. 단체방을 잘 활용하면 교육의 효과가 아주 높다는 사실을 아시고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교육 후 느낀 점이나 질문 등을 여기를 통해 하게 하시면 누군가가 여기에 반응하여 자신의 답을 달고 이 과정을 지켜보시다 잘못된 부분을 수정해주시는 방법은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녹화: 전 과정을 녹화해 두시면 좋은 자료가 됩니다. 후 그 도입에 참석을 하지 못한 분들과도 이를 나누면 됩니다. 녹화기능을 실행했을 때 회의가 끝나면 자동으로 파일을 만듭니다. 나누는 방법은 이 파일을 Youtube에 올리는 것입니다.

모두가 보게 하는 것이 아닌 Unlisted 즉 미등록을 이용하여 Youtube에 올리고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동영상을 보고 숙제를 제출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유튜브에 올릴 때 약간의 편집과정을 거치시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무슨 화상회의를 사용하시던 상관없습니다. 완벽한 상태를 만들고 하실 수는 없습니다. 시작하시면서 수정해 나가시는데 위의 경험에 도움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http://pf.kakao.com/_FmSzx/49581334 (909)971-7720, sjyoon7231@gmail.com

패밀리터치 제 2차 푸드 드라이브

뉴저지 리틀페리에 위치한 비영리 가정상담 교육기관인 패밀리터치(원장 정정숙)이 두 번째 COVID-19 Sharing Caring Food Drive를 5월 16일 100명의 신청자에게 다양한 음식과 생필품 등을 전달했다. 두 번째 드라이브는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퍽셔, 현재 실업상태인 개인, 그리고 저소득층 개인 및 가정을 선발해 꼭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난 세 달 동안 패밀리터치는 청소년, 싱글맘, 부부&가족, 시니어 프로그램 그리고 상담 서비스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한 바 있다. 가정의 달 5월에도 무료 가족 사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부들을 위한 무료 부부대화 워크샵(5월21일-6월25일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과 자녀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신나는 가족캠프(5월30일-6월13일 매주 토요일 오후 7-9시)를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 기간 중 긴급 상담과 함께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후원 모금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후원자들은 패밀리터치(www.familytouchusa.org)로 연락하면 된다. ▲후원 및 등록문의: (201)242-4422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요한 곳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난 세 달 동안 패밀리터치는 청소년, 싱글맘, 부부&가족, 시니어 프로그램 그리고 상담 서비스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한 바 있다. 가정의 달 5월에도 무료 가족 사랑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부부들을 위한 무료 부부대화 워크샵(5월21일-6월25일 매주 목요일 오후 7-9시)과 자녀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신나는 가족캠프(5월30일-6월13일 매주 토요일 오후 7-9시)를 제공한다. 특히 코로나 기간 중 긴급 상담과 함께 무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후원 모금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후원자들은 패밀리터치(www.familytouchusa.org)로 연락하면 된다. ▲후원 및 등록문의: (201)242-4422 (기사제공: 패밀리터치)



뉴욕동노회 준비위원회가 총회에 앞서 기념촬영 했다.

KAPC 제 44회 총회

(1면에서 계속)

그들은 '이 일에 관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화평과 교회의 유익한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주장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은혜를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누구를 불문하고 필요한 것은 성경으로 입증하라고 했다. 성경으로 입증되지 않은 말은 할 필요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답서의 문제마다 뒤에는 성경구절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조 목사는 "즉 은혜가 아닌 것은 주장하지 않겠다. 그리고 성경이 아닌 것은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은혜와 진리가 총명한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리문답이 만들어졌다. 이들의 그 고백이 우리 총회의 고백이 돼서 '오직 은혜, 오직 진리'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충성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개회예배 후 열린 회의는 양수철 목사 사모가 총회준비위원장 허민수 목사가 환영사를 했으며 서기 절차보고, 고시부 보고가 있었다.

목사고시는 총 25명이 치른 결과 전과목 합격자는 20명이다. 명단은 다음과 같다.

공공진(남부), 김민(동남), 김성수(수도), 김안세(서남), 김정민(뉴욕), 박기찬(워싱), 박병준(뉴욕), 백에스라(워싱), 오정훈(중부), 오진우(북가), 유지대(카나), 이장원(북미), 장세일(북미), 전주현(뉴동), 정우승(뉴동), 황찰스(북가), 이용재(서남), 이재환(뉴욕), 최진식(뉴욕), 한우연(뉴욕).

공천부 보고에 이어 임원선거가 있었다. 임원선거에서는 부총회장 투표를 있었는데 투표는 총회참석 회원들에게 구급표를 이용해 투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투표할 수 있는 페이지 링크를 이메일로 총대들에게만 보내 이날 오후 5시까지 상회비를 납부한 156명에게 투표권이 주어졌다.

부총회장은 오세훈 목사(세계망교회, 로스앤젤레스), 권혁천 목사(상향중앙장로교회, 북가주)가 후보로 나섰으며 투표에 참석한 134명중 오세훈 목사가 72표, 권혁천 목사가 62표를 얻어 다 득표를 받은 오세훈 목사가 부총회장에 당선됐다.

부총회장에 당선된 오세훈 목사는 1991년부터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로 재직하면서, 총회의 여러 직책들(서기, 고시부장, 교육부장, 인사부장)을 역임했다.

이어 조문휘 총회장 취임인사, 광고, 출석위원 선정, 공천부 보고, 상비부 위원보고, 서기 보고, 총무보고 등이 있었으며 형제교단 총회장들의 축하영상

이 소개됐다. 축하동영상은 문수석 합신총회장, 조성환 개혁총회장, 신수인 고신총회장, 황영식 대신총회장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 왔다.

총회새임원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조문휘 목사(뉴욕동) △부총회장: 오세훈 목사(로스앤젤레스) △서기: 이준우 목사(가주) △부서기 손기성(수도) △회록서기 주병렬(워싱턴) △부회록서기 박기영(필라) △회계 김원도(뉴욕) △부회계 김흥규 장로(북가주) △총무 김영기 목사 연임.

이번 총회에서는 △헌 군목 상임위원회를 군선교상임위원회로 명칭 변경해 세계선교위원회 안에 병합하는 안은 1년 더 연구 △내지선교부는 무한인교회 지역 미자립교회 지원 요청을 6월 30일까지로 했다. △교육부는 청교도 400주년 기념 세미나를 2020년 내 화상염으로 개최하며, 목사장로기도회(2021년 2월과 3월), 중부지역 목사장로기도회 신설 등을 보고했다.

△상임교육연구위원회는 1) 웨스트민스터 대, 소요리 문답 번역 완료 2)결혼 예비자들을 위한 상담 핸드북(한영) 제작 3)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교육교재 제작 4)목회와 신학포럼 계속 등을 보고했다.

△신학부는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는 오직 성경대로(Sola Scriptura) 믿는 개혁주의 교단으로 동성애나 동성결혼 등(LGBTQ)은 성경(레 18:22, 20:13; 롬1:26-27; 고전6:9)에 위배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천명합니다"라고 보고하고 "본 교단에서 고백하는 영문 사도신경 중 'He descended into hell'에 대한 연구의 건"은 COVID19로 1년 더 연구해 45회 총회에 보고하기로 했으며, 한어, 영문 사도신경에 대한 역사적, 신학적, 교단적 연구를 위한 신학세미나(1박2일) 개최하기로 했다.

△교단발전상임위원회는 (고) 장영준 목사 추모예배를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와 협의하여 1주기 때 드리기로 했으며 본 총회 산하에 속한 목사가 타 교단 설립대표를 할 수 있는 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에서 해외교단 설립 추진에 대해 총회에 문의하며 교단의 이중 교적 문제는 임원회에 맡기기로 했다.

또 이외에 △2026년 총회 50회 기념 역사편찬위원회 조직 △총회수첩은 e-book과 종이수첩 동시 발행 △2017년도 이전의 밀린 상회비 일괄적 탐감 △북미주노회 노회장 Daniel Kim 목사가 청원한 동서 노회분립 청원 허락 등을 결의했다.

특히 이번 총회에서 대면친교할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 전직 총회장들(6대 고응보 목사, 20대 윤중호 목사, 24대 천성덕 목사, 25대 이영섭 목사, 27대 김경진 목사, 29대 이용걸 목사, 30대 전덕영 목사, 33대 송찬우 목사, 34대 문성록 목사, 36대 김남수 목사, 37대 엄영민 목사, 38대 정관일 목사, 39대 김영수 목사, 40대 오택원 목사, 41대 유재일 목사, 42대 김재열 목사, 43대 양수철 목사, 파라과이 정교대 선교사)의 덕담 동영상도 상영됐다.

한편 제 45회 총회는 2021년 5월 19일(화) 개최하기로 결의했다.

(박준호 기자)

교계 게시판

새생명선교회 작은 교회 지원

새생명선교회(대표회장 박희민 목사, 사진)는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는 45개 교회를 선정해 1000달러씩 지원한다. 교인 50명 이하의 교회면 신청이 가능하고 신청마감은 5월 31일, 신청을 원하는 교회는 교회 및 담임목사 이름, 주소, 교세, 설립일자 등을 New Life Mission Foundation 4529 Frederick Ave La Crescenta CA 91214로 우편메일 하면 된다.

뉴욕가정상담소 무료 법률상담

뉴욕가정상담소(소장 이지혜)는 뉴욕과 뉴저지 사무소에서 5월 무료 법률 상담을 실시한다. 상담내용은 이민, 이혼, 자녀양육 등에 대한 법률상담이며 뉴욕은 5월 21일과 22일, 뉴저지는 5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상담을 원하면 뉴욕가정상담소 24시간 핫라인(718-460-3800)로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사전 전화예약 필수). 상담 예약 후 자택 또는 상담소를 방문해 변호사와 전화상담을 하게 된다.

▲문의: (718)460-3800

미주복음방송 '나눔 온 캠페인' 진행

기도와 물품 지원 병행...후원자 찾아

미주복음방송(GBC, 사장 이영선 목사)은 COVID-19 사태를 맞아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 '나눔-On(온) 캠페인'을 기획 진행하고 있다. 이 '나눔-On(온) 캠페인'은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들을 모아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에 전달하는 다리가 되는 역할로 지난 5월 1일부터 시작돼 사태가 호전될 때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며, 방송을 청취하는 회원뿐 아니라 비 회원도 간단한 가입절차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캠페인에서 함께 나눌 내용은 △중보기도로 함께한다. △물품(생필품) 지원으로 함께한다. △펀드(생계비) 지원으로 함께한다. 또한 물품 또는 재정 후원자도 찾고 있다. GBC 관계자는 "현재 많은 분들께서 물품(마스크, 손 세정제, 화장지, 쌀 등)과 재정으로 후원해 주셨고, 그 온정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분들께 전달하고 있다"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남모르는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은 주저마시고 알려주시기 바란다. 작은 힘이라도 되어드리겠다"고 말했다. 나눔-On(온) 캠페인에 동참할 자들은 미주복음방송 홈페이지(www.kgbc.com)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은 이메일 nanum-on@kgbc.com 또는 (714)484-1190로 하면 된다. (기사제공: 미주복음방송)

굿네이버스USA, 십터지원 캠페인

가정폭력 여성 어린이 위한 온라인 모금

굿네이버스USA(회장 이일하)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노숙인이 된 여성과 어린이를 위한 십터 지원 온라인 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 굿네이버스USA는 2018년 11월 여성아동십터를 개소하고 연간 150명의 피해 여성과 어린이를 안전한 십터에서 보호하고 숙식지원과 직업교육 및 연결, 그리고 자녀들의 학교등록 및 방과후 교실은 물론 십터를 퇴소할 때 렌트비를 지원해 사회로 온전하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십터의 운영은 LASHA(Los Angeles Homeless Services Authority)와 CALOES(California Governor's office of Emergency Services)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고 있지만, 모든 운영과 프로그램을 위한 비용을 기관 기금으로 선 지불 후 2-3개월 후에 정산 받는 정부 보조 시스템과 30%에 육박하는 자부담율로 인해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3월부터 시작된 COVID-

19 스테이홈 명령으로 인해 가정폭력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 약자인 여성과 아동 청소년들은 폭력 및 성폭력 등 심각한 범죄를 경험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거주할 집과 식량을 구하기 힘든 상황으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LAHSA 통계에 따르면 LA지역 노숙인 6만명 중 여성은 약 1만명, 아동청소년은 3,000명에 달한다(출처: https://www.lahsa.org/). 이 수치는 COVID-19 사태 이후 더욱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굿네이버스USA는 가정폭력피해 여성과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머물 수 있도록 기존의 십터 사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은 물론 십터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여성아동십터 캠페인 자세히 보기: https://www.kr.goodneighbors.us/shelter 후원문의: 877-499-9898, 가정폭력피해 핫라인: 800-799-7233 (기사제공: 굿네이버스 USA)

8월11일-10월31일 정보원 가구방문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업데이트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까지 8천6백만 가구가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했다. 이는 미국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에 해당된다. 센서스 당국은 아직 응답하지 못한 자들은 데스크톱 컴퓨터, 노트북,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을 사용해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인터넷 사이트 my2020census.gov에서 응답하거나 전화나 우편으로도 응답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한편 코로나 19에 따른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타임라인이 조정된다. 5월부터 우편주소

를 사용하지 않고, 가구별로 인쇄된 설문지를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센서스 인구조사가 재개됐으며 오는 8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구 정보 수집원이 직접 방문해 양식 작성을 돕는다. 10월 31일은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설문지를 제출하는 마지막 날이며 온라인, 우편 또는 전화로 응답할 수 있다. 2021년 4월 30일은 새롭게 예정된 대통령에게 연방하원 할당의석수를 전달하는 날로, 의회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이전 일자는 2020년 12월 31일이었다.

코로나19와 교회 [1] 퀸즈장로교회 기획위원회

[편집자주: 이 글은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기획위원회가 본 교회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교회의 동의를 얻어 본지가 연재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구촌을 뒤덮고 있다. 사람들은 지난 몇 주 동안 생활 방역수칙을 성실하게 지키고,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며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 결과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이제 사람들이 실제 바이러스 감염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pandemic)이 가져다 준 '불확실성'이다. 불완전한 정보나 미지의 정보를 토대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다.

대다수 학자는 최근의 시대 구분을 BC(Before Corona)와 AC(After Corona)로 할 만큼 전 세계가 코로나 전후로 급변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불확실성 시대에 교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또한,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구성원에게 어떤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150여년 동안이나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탁월한 리더십으로 52일만에 재건했던 느헤미야, 그는 성벽 재건이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많은 준비 작업을 거쳤다. 그가 아무리 위대한 리더라도 철저한 계획과 사전 조사가 없었다면 성벽 재건이 쉽게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우리 가운데 무너진 성벽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무너졌던 성벽을 바로 세우기 위해 지금부터 무엇이 무너졌는지 철저히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후 함께 기도하면서 머리를 맞대고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함으로 무너진 성벽을 바로 세우는 재건 작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것이다.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다.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계신다. 코로나 19의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새롭고 기대 가득한 미래로 나아감으로 시대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이다. 많은 기사와 논설을 수집하고 발췌, 정리한 이 보고서가 코로나 이후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교회에 주어진 과제를 완성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코로나19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많은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하여 염려하는 때, 교회 역사에서 전염병이 확산되었던 비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렸던 세 가지 역사적 사건을 살펴보면 교훈을 얻고자 한다. 서기 165-180년 사이에 일어난 전염병으로 급격한 인구 감소를 초래했다. 10년 이상 동안 로마제국의 인구는 2천5백만명 감소하였다. 정확히 같은 시기에 교회는 거의 50만 명이 성장했다. 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동안 교회가 왜 성장했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의심할 바 없이, 기독교인들은 아픈 사람들을 돌보기 위하여 삶과 죽음 그 사이에서 있었다.

3세기 로마제국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전염병이 창궐했을 때, 교회 역사학자 유세비우스(Eusebius, 260-340)는 서기 263년에 있었던 전염병의 확산 과정에서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기독교인들의 대부분은 넘치는 사랑으로 형제와 같은 친절을 아끼지 않았다. 그들은 서로를 굳게 붙잡고 격려하며, 병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찾아다녔으며, 그리스도를 섬기면서 지속적으로 사역하였다. 기독교인들은 전염병에 걸린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감수하고, 전염병에 걸린 이웃을 도우면서 가까이 고통을 받았다. 그리고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죽었다. 환자들을 돌보며 많은 사람을 격려했던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

13세기 후, 유럽의 페스트 전염병이 확산되는 시간에도 다르지 않았다.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는 위기 속에서 마틴 루터는 전염병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다음과 같이 교회를 격려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여, 우리를 보호해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나는 먼저 소독을 하고, 공기를 정화시키고, 약을 투여하고, 약을 복용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나 자신이 전염되지 않기 위하여 필요 없는 장소를 가지 않고, 사람들을 피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나의 부주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죽음을 초래하지 않아야 하기에 다른 사람들을 감염시키거나 오염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그는 틀림없이 나를 찾으실 것이며,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신 대로 행동하였다면 나는 내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없애줍니다. 하지만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어떤 장소와 어떤 사람도 피하지 않고 갈 것입니다.”

코로나19,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오늘날 코로나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시대에도 틀림없이 하나님은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신다. 교회가 그동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쉬지 않고 수행함에 따라 천국은 가까워지고 있다. 그리고 그 사명은 바뀌지 않았다(행1:8). 오늘날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21억의

장이가 그를 진찰할지나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레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레13:2-5) 이처럼 전염병 환자를 격리하고 관찰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격리된 이들이 공동체로 돌아오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치유하셨다.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나병 환자들을 만져 깨끗하

이)를 표현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코로나19 때문에 격리된 이들이 외롭지 않게 그들도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며, 영광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그런 의미에서 많은 교회가 미디어를 통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날의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여러 이유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

주일에배에 있어 강조되어야 할 내용은 크게 3가지이다. 그것은 주일에배가 공적 예배라는 점과 공동 회집 그리고 장소는 다른 날과는 구별된 날이고,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야 할 날이다(출20:8).

주일은 주중 하루의 전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며 거룩히 지키는 날이다. 이것은 적절한 정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하는 자연의 법칙과도 모순되지 않는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7항). 개혁신교회들과 청교도들은 주일성수를 강조해왔다. 또한 주일에배는 공동 회집의 예배이다(예배지침 2장 4조). 주일에배는 사적 예배나 개인 예배가 아니다.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이 함께 모이는 공적 집회의 예배이다.

다음은 장소의 문제이다. 공동회집 예배는 반드시 장소가 관계되어 있다. 물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장소에 따라 더 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신약의 예배는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이기 때문이다(요 4:24). 그럼에도 하나님은 공적 예배의 모임을 명하신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6항).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안식의 날인 주일에 제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교회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례

것이 오히려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켰던 역사적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종교개혁가들도 주일성수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하였다. 하지만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피신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였다. 비록 칼빈이나 루터와 같은 목회자들은 죽음을 독립시키고 남아있는 환자들을 돌보기도 하였지만 성도들이 예배당을 떠나 피신하는 것을 금하지 않았다.

교회가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성도들을 일정기간 격리시키는 것은 성경에도 근거한 것이다. 레위기 11-15장의 정결법은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막과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진행 밖으로 격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히브리서 10:19-22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믿음과 회개를 통해 성도들이 제의적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한 몸과 마음을 얻게 됨으로 근본적으로 성취되었다. 하지만 레위기 15:31, 민수기 5:2-3, 19:20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공동체를 전염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정결법 제정의 목적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다.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에 걸렸거나 감염이 의심되는 성도들의 예배 참여를 제한하는 것은 위의 말씀들을 적절하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영상이나 예배문으로 예배를 대체하는 것은 본래 공예배의 원리와 목적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가 될 수 있다. 소요리문답은 “안식일은...공적으로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데 사용함으로써 거룩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은 예외로 합니다”라고 쓰고 있다(60문답). 대요리문답도 “부득이한 일과 자선 사업에 쓰는 일을 제외하고”(117문답)라고 했다. 부득이한 일은 피할 수 없는 일, 다른 날로 연기할 수 없는 일, 집어 화제가 발생했거나 강도가 들었다면 그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 등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이 과연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일인가? 일반적으로 확실히 작금의 상황은 비상적이다. 그러나 이런 비상적이고 심각한 상황조차 일반화의 오류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 모든 지역의 상황이 동일하게 일반적이지 않고, 모든 교회의 상황이 동일하게 일반적이지 않다. 따라서 그 대처와 조치 역시 각각 달라야 한다.

3. 당회의 직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주 부득이한 상황 속에서 교회가 공예배 외에 다른 형태의 예배를 시행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이와 같은 예배들이 공예배의 중요성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점에서 당회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교회지침 121조 2항은 교회의 제반 예배를 주관하는 것은 당회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예배 외의 특별한 형태의 예배들은 편의적이거나 자의적으로 시행되어서는 안되며, 당회의 결정과 감독에 따라 질서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 당회는 바로 그 신속한 결정을 통해 성도들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한 당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따라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목차 신학적 성찰

코로나19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코로나19와 주일에배
코로나19와 환경

온라인 예배와 소그룹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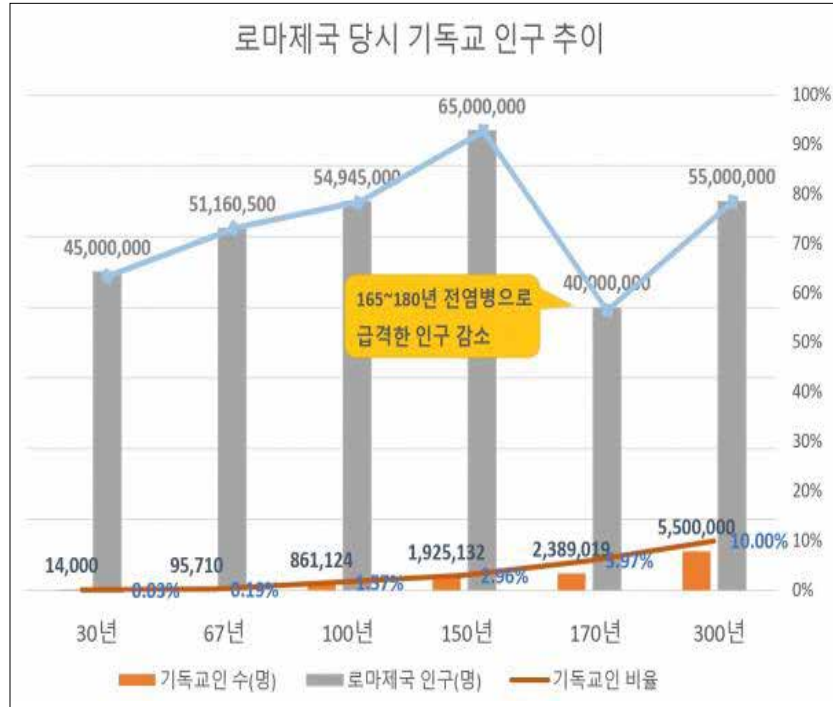
온라인 예배의 순기능
온라인 예배의 역기능
온라인 소그룹의 실제 - Zoom 사용법

교회 재개방시 안전 수칙

단계별 접근 방안
한국 교회 사례

코로나19 이후의 과제

코로나 이후 분야별 전망
가정 중심의 신앙교육으로 패러다임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교회의 역할
코로나 사태를 통해 느낀 점 & 제안



코로나19를 복음전파의 기회로 삼고 교회가 한 예배공동체임 인식 공적 예배 중요성 각인...교회와 성도의 사명 다할 때 예배는 부흥

인구가 복음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나 있는데, 이 숫자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금도 증가하고 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269개의 서로 다른 민족은 아직도 선교사를 접촉한 적이 없다.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두려움과 과잉 반응으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을 주저한다면 온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사역은 더딜 것이다.

위기의 시기에도 교회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알리야 할 사명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모든 종족, 민족, 언어, 그리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보기 위해(계 5:9), 하나님과 그분의 사명에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초기 기독교인들처럼 우리 자신의 희생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19, 우리가 한 운명공동체, 예배공동체임을 깨닫게 해준다.

구약 성경에서 전염병에 대응하는 주된 방법은 환자의 격리였다. 예를 들면, “만일 사람이 그의 피부에 무엇이 돋거나 뾰루지가 나거나 색점이 생겨서 그의 피부에 나병 같은 것이 생기거든 그를 곧 제사장 아론에게나 그의 아들 중 한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

가 하신 후 공동체로 돌려보내시고,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지고 병이 나은 것을 믿음의 행동으로 칭찬하셨다. 뿐만 아니라 병든 친구를 위해 네 명의 친구들이 지붕을 뚫고 모임에 들어온 것을 보시고 행동으로 표현된 믿음을 칭찬해 주셨다. 예수님은 이처럼 몸의 질병보다 사회적 격리를 더 안타까워하셨다. 병이 낫는 것을 넘어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람들은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고, 관계의 귀중함을 다시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죽어 가는데 아직 내가 건강하게 살아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다. 아무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위생규칙을 잘 지켜도 감염되어 죽는 사람도 많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코로나19로 죽지 않아도 언젠가는 죽게 된다. 그러나 누가라도 독특하게 죽어서는 안된다. 예수님은 몸만 죽이고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 어떤 것, 예를 들면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신다(마10:28).

성경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을 무서워한다는 뜻이 아닌, “하나님에 대한 경외”(이르아트 야도

아와 예배를 드리고,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 인류가 두려움에 떨고 고독에 잠겨 있는 이 때,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 관계 속에서 서로를 돌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이들을 다시금 예배로 초청하는 기회로 삼는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이 코로나19를 만난 우리나 그것을 대하는 성경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이 글의 일부는 <https://ephesiology.com/blog-post/coronavirus-and-history/>를 참조한 것입니다.]

코로나19와 주일에배

코로나19 확진자를 통해 집단 감염과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행정 명령에 따라 미국 대다수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미국 뿐 아니라 세계 교회들이 주일에배를 인터넷과 가정예배로 대체하였고 한국에서도 각 교단 총회 차원의 대응 지침과 성명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주일에배와 관련하여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며, 이번 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교회와 예배”에 대한 신학적 논쟁은 계속될 것 같다.

1. 공적 예배의 중요성

에 참여하며 주님께 공적으로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기를 명하십니다”라고 답한다(103문답).

이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예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구체적인 한 장소에 모여서 유일하신 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이다(신 4:10).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마18:20), 즉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가 시행되는 곳에 교회가 있다. 따라서 성도는 모이기를 폐하지 않고 힘써 모여야 한다(히10:25). 신앙고백서도 신자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지만, 공적 집회에서 더 엄숙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집회를 임의로 소홀히 하거나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친다(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6항). 성도는 질병 혹은 감염의 이유로 발생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는 모여 예배하는 것을 더욱 사모해야 하며 혹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야 한다.

2. 불가피한 상황과 부득이한 일 공예배가 지극히 중요하지만, 신앙고백서가 가르치고 있듯이 공예배를 절대화시키는 위험에 빠져서도 안 된다. 무지와 미신에 빠져있었던 중세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배당으로 몰려들기도 하였지만, 그

세기총 신임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

5월 15일 제8차 정기총회 영상으로 전 세계 중계

사단법인 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세기총) 제8차 정기총회가 5월 15일 오전 10시 서울 100주년기념관에서 “회복하여 주시고 구원을 얻게 하소서(사80:7)”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대표회장 임취임식 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했다.

이번 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예정보다 70여일 늦게 열리게 됐으며, 20개국 42명 등 대의원 77명의 위임을 포함해 총 105명의 총회 대의원 참석했다. 이날 총회는 유튜브로 전 세계에 총회 실황을 중계했으며, 신임 대표회장으로 조일래 목사가 선출됐다.

당일 오후 2시에 열린 취임식에서 조일래 목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서 무거운 직임을 맡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며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동안 지속해온 한반도 자유 평화 통일기도회와 전 세계 50개 지부확장(현재 14개 지부)을 통한 세계선교, 다문화가족과 이주민을 지원하는 사업, 그리고 2·3·4부흥운동의 사역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2·3·4부흥운동은 교역자가 하루에 2시간 기도하고, 3시간 말씀을 읽으며, 4시간 전도하는 운동이다.

1부 개회예배는 공동회장 김태성 목사의 사회로, 상임회장 이종찬 목사의 기도, 상임회장 김동근 장로의 성경봉독, 후원

이사 김관중 목사의 찬양과 초대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의 축도로 진행됐다.

세기총 법인이사장 고시영 목사는 요한계시록 3:14-22의 본문으로 “교회에 대한 책망”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한국교회도 심히 힘들고 회복이 어렵게 됐다. 이러한 때에 한국교회는 라오디게 아교회에 대한 주님의 책망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현재 자기 자리를 돌아보고 예배와 기도를 회복하는 교회 본연의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한국교회와 신학의 중심을 지키며 기본적인 신앙으로 흐른 잘못을 회개하고 열심을 낼 때 회개하는 한국교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부 회부처리는 준비위원장 조일래 목사의 환영사,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의 내빈소개, 대표회장 최낙신 목사의 영상인사, 상임회장 유영식 목사의 개회기도로 시작했다.

대표회장 선출은 준비위원장 조일래 목사가 추대대 만장일치 박수로 가결 선출했으며, 신임 수석상임회장은 미기총 직전 대표회장 심평중 목사가 만

장일치로 추대 받았다.

이어 임원인준 및 8회기 사업계획 및 예산 심의의 건을 처리하고 공동회장 김태성 목사가 제8회 총회선언문을 발표하고 3대 대표회장 김요셉 목사의 기도로 회의를 마쳤다.

한편 대표회장 임취임 예배는 6대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사회로 상임회장 김동욱 목사의 기도와 공동회장 박광철 목사의 성경봉독, 손정윤 교수의 축가 후 한교총 공동대표이며 기성총회장인 류정호 목사가 “내가 누구를 보낼까”(사6:8-12)라는 제하의 설교를 했다.

이어 직전대표회장 최낙신 목사의 영상 이임인사와 신임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가 취임인사를 한 후 세기총 깃발 및 의사봉을 인수받았으며, 취임패와 꽃다발을 받았다.

이러한 축하순서에서는 격려사에 초대 대표회장 박위근 목사와 4대 대표회장 고시영 목사, 축사는 기갑 전감독회장 전용재 목사, 크로스로드 이사장 정성진 목사, 유럽한인기독교총연합회 사무총장 김호동 목사, 수석교회 담임 이성준 목사가 했으며,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상 축사, 직전대표회장 최낙신 목사에게 공로패를 전달하고 모든 순서를 마쳤다.

한편 사무총장 신광수목사는 세기총 총대들이 낸 10만원씩의 총회 등록비 전액을 세기총 14개 지부에 마스크를 구입해 보낼 것이며, 5월 21일 오후 7시, 서울역 노숙자들에게 사랑의 밥을 나누며 신임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의 임기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기사제공: 세기총)

돌아오는 이단 이탈자들...한국교회는 맞을 준비 돼 있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비밀주의, 폐쇄성 등이 사회적 지탄을 받으면서 이단·사이비 집단에 미혹된 신도들의 이탈이 잇따르고 있다.

진용식(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 목사는 12일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안상당소외의 경우 전년 대비 3-4월 전화상담 건수가 2배 이상 늘었고 강남상담소는 10배 가까이 폭증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천지 신도임을 숨겨왔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겪는 동안 가족에게 노출됐거나 자신이 소속된 이단 집단의 실체를 뒤늦게 깨달은 사람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지에서 나왔는지, 회심을 가장해 포교활동을 펼칠지 어떻게 아느냐며 의심하는 눈초리가 계속돼 견디기 힘들었다”고 전했다.

권남계 부산성서화운동본부 이단상담실장은 “이단·사이비에서 이탈한 신도들은 회복을 위해 기성교회를 찾더라도 이단에서의 신앙생활 경험을 발휘할 기회를 주고 혼란을 겪는 등”이라며 “담임목사 입장에서도 해당 성도의 회심을 검증할 만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회복’과 ‘배려’를 해법의 핵심으로 꼽았다. 이탈 신도들에게 바른 교리를 재교육해 영적 회복을 도모하고 기성교회 성도들이 회심자와 거버넌스 없이 융화될 수

와 기존 성도 간 소통을 돕고 전문 상담이 필요한 경우 상담소로 연결해 주는 역할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

교회 부설 이단대책연구소를 개소해 5년째 운영하는 대구 동일교회(오현기 목사)는 연간 400여건의 상담을 통해 이단·사이비 탈퇴자의 신앙 재정립을 돕고 모교회로의 연결을 지원한다. 매달 한 차례씩 신천지 피해자 모임을 갖고 영적 상처를 치유하는 자리엔 코로나19 사태 전까지 꾸준히 50여명이 참석했다. 오현기 목사는 한국교회가 증가하는 이단 탈퇴자들을 품기 위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첫째, 각 교회에 이단 대응 교육을 이수한 상담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이단

신천지 사태로 이단 민낯 드러나 이단상담 문의 10배 가까이 폭증

“코로나19로 인해 신천지의 민낯이 드러나면서 유사한 특성을 가진 이단 신도들의 이탈이 지속될 것”이라며 “특히 교주의 사망 등 변수가 발생하면 이탈 급증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대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단·사이비 이탈 신도들에게 영적 울타리가 돼 주고 회복을 도와야 할 한국교회의 준비는 미비한 게 현실이다. 모태신앙으로 살다가 신천지에 빠진 뒤 3년을 보내고 탈퇴한 서수진(가명·25)씨는 과거 출석했던 모교회에 갔다가 신앙생활을 포기해야 했다. 서씨는 “3년여 만에 교회로 돌아갔을 때 돌아온 탕자”를 맞아 준 아버지처럼 잘 대해 주셨는데 신천지에 있었다가 회심했다는 교백을 한 뒤 성도들의 태도가 변했다”고 고백했다. 이어 “진짜 신천

있도록 교회 안에 배려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탁 교수는 “세신자의 경우 공터 위에 새집을 짓듯 신앙 교육을 하면 되지만, 이단·사이비 이탈 신도는 이미 지어진 집을 리모델링하거나 일부 파괴된 부분을 재건하는 작업이 필요해 인내심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단·사이비 교리의 무엇이 잘못된지를 지적하는 부정성을 띤 교육보다는 크리스천으로서 무엇을 믿어야 하고,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를 신앙고백에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교회 내 이단대응팀이 있는 경우 그 기능을 재편하는 작업도 필요하다. 그동안 이단의 침투를 예방하고 내부 혼란을 해소하는 데 주력했다면 이제 는 교회를 찾아온 이탈 신도

상담소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담사를 배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중간교육센터를 설립해야 합니다. 이단 탈퇴자의 신앙 재교육 과정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수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해 기성교회로 돌아갔을 때 기존 성도들이 의심의 시선을 견뎌낼 수 있게 돕는 겁니다.”

동일교회는 현재 운영 중인 평생교육원 과정에 이단상담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할 계획이다. 오 목사는 “코로나19를 겪으며 큰 홍역을 치른 만큼 대구 교계의 이단 대응을 위한 협력도 가시화되고 있다”며 “새터민들이 하나를 거쳐 사회 정착을 준비하는 것처럼 지역마다 교회들이 힘을 모아 이탈 신도들을 위한 신앙교육센터를 세우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결의서 낸다

기하성, 여의도순복음교회서 정기총회 개최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기하성)는 18일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 비움성전에서 제69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동성결혼 합법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담은 결의서를 교단 차원에서 내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는 178명의 총회 대의원(총대)이 참석했으며 653명이 위임장을 보내왔다.

이영훈 기하성 대표총회장은 “본 교단은 동성애자를 차별하지 않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한다. 그러나 동성결혼을 이를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반대한다”면서 “성경적 창조 원리에 어긋난 동성결혼 합법화 시도가 이번 국회에서 추진되지 않도록 결의서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기하성 교단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KC·총무 이흥정) 회원이라는 주장에 대해선 사실무근이

라고 밝혔다. 이 대표총회장은 “NCKC에 가입된 교단은 기하성 신수동 측이라 불리는 교단으로 본 교단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NCKC는 지난달 22일 제21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일부 총대는 교단지인 순복음 총회신문이 특정 정치인의 의견을 광고로 실은 점을 문제 삼았다. 문제의 광고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현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대표총회장은 해당 광고에 담긴 글과 총회의 입장은 다르다고 밝혔다.

총회에선 제68차 목사고시 및 편목고시 합격자 111명과 각 지방회장의 제69차 총회 실행위원 자격 인준을 결의했다. 이번 총회 예산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36억 5000만원으로 동결

했다.

이 대표총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주일 예배가 온라인예배로 대체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기하성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어려움을 잘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그 정체가 드러난 신천지 이단이 해체되고 그 안에 빠져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온 교회가 기도하며 준비하자”고 요청했다. 기하성 교단의 정체성 중 하나인 ‘성령 충만’ 순복음 신앙의 회복을 강조하며 말씀과 기도, 전도가 회복돼 세상 속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장막 터를 넓히는 총회’(사54:2)를 주제로 한 이번 총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참석자를 최소화해 진행했으며 이날 오후 3시 폐회했다.

장 선출결의 무효 확인 소송의 분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회장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덧붙였다.

전광훈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 정지

법원 “재선출과정에 하자” 비대위가 낸 가처분신청 인용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지난달 20일 석방된 지 1개월 만에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18일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엄기호 목사) 소속 목사 4인이 전 대표회장을 상대로 낸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기총)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분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전광훈)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의 핵심은 전 대표회장이 지난 1월 30일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재선출된 과정의 절차적 하자였다. 전 대표회장은 당시 총회에서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로 연임이 결정됐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 12명에 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하고 비대위 소속 목사들의 총회 입장을 거부한 게 위법이라 판단했다.

전 대표회장은 “지난해 9월 정관 변경을 통해 명예회장을 총대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소집 통보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한기총의 정관 변경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인 문화체육관광부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출결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법원은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박수 추대 결의가 허용되지만,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의 기회가 보장된다는 전제 하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전 대표회장이 선출결의가 유효함을 전제로 현재의 지위를 주장하며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회장 임기는 1년에 불과하나 회

온라인 예배, 찬송가 저작권료 논란 일단락

찬송가공회 “상업적 목적 사용할 때만 징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현장예배가 온라인예배로 대체되면서 ‘예배 영상 내 찬송가 저작권료 지급’을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온라인 예배에서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21세기 새찬송가’와 ‘통일찬송가’의 저작권자인 한국찬송가공회(이사장 김경훈 오창우 목사)에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게 사실이라는 논란이었다.

찬송가공회는 18일 찬송가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저작권료를 징수하지 않는다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찬송가공회 관계자는 “공회는 온라인예배 부분에서 저작권료를 받을 계획이 없다. 이는 공동이사장 두 분의 일

이단세미나 주의보...온라인 예배자 노린다

‘온라인 성경세미나’에 끌려 정통교회 성도들 접속가능성 커

박옥수의 기쁜소식선교회에 주관하는 성경 온라인 세미나 광고가 최근 여러 일간지와 온라인에 다국어로 게재됐다.

기쁜소식선교회는 한국교회 주요 교단이 이단으로 규정된 단체인 만큼 정통교회 교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청된다. 이들은 광고에서 94개국에 함께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세미나를 연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정통교회 교인들이 성경 세미나라는 내용에 끌려 이들의 유튜브 채널에 접속할 가능성이 크다면 우려했다. 교인들이 유튜브를 통해 낯선 신앙 콘텐츠를 접할 경우 반드시 교역자에게 문의하라고 당부했다.

탁지일 부산장신대 교수는 12

일 “코로나19로 교회는 물론이고 이단들까지 온라인 의존도를 높여가고 있다”면서 “기존에도 온라인을 통해 신도를 통제하던 이단들이 온라인에서 더욱 기세를 부릴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그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를 시청하거나 구독하기 전 반드시 교역자에게 문의하라”면서 “이단 경계를 위해 온라인 거리 두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출석하는 교회의 온라인 예배를 유튜브로 시청할 때도 주의가 필요하다. 교회 유튜브 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화면 오른쪽에 뜨는 추천 영상 중 이단들의 설교가 있어서다. 특정 영상을 선택한 시청자에게 이와 유사한

영상을 소개하는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서울 영등포구 A교회의 B권사는 “교회에 새로 부임한 부목사가 온라인 예배를 위한 유튜브 링크를 쥐 들어가 봤는데 이단들의 설교가 함께 떠 깜짝 놀랐다”면서 “부목사가 이단 설교가 실린 유튜브 링크를 의도적으로 소개한 게 아닌가 싶어 걱정됐다. 오해는 풀렸지만 초신자들이 이단들의 설교를 무분별하게 볼까 염려된다”고 했다.

탁 교수는 “정통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인데도 온라인상에서 정체불명 설교에 빠져들 수 있다”면서 “정통교회에 속해 있다는 안정감 때문에 이단들의 설교에 대한 경계심이 점차 사라져 결국 분별력을 잃게 된다”고 경고했다.

온라인’ 항목에 ‘21세기 새찬송가 및 통일찬송가 곡을 사용해 영상 제작(유튜브나 SNS)’이 저작권 사용 징수 대상이며 곡당

성경활용률, 주일예배보다 새벽예배 때 높다

‘한국교회의 예배 및 양육프로그램과 성경읽기의 상관관계’ 설문

한국교회의 주일 대예배에서는 성경강해설교보다 주제설교가 활용되는 비율이 높고, 양육프로그램에서도 성경이 활용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소셜미디어 채널 ‘교회친구’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4일까지 전국 교회 250곳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의 예배 및 양육프로그램과 성경 읽기의 상관관계’를 주제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조사는 교회친구 오픈채팅방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주일 대예배의 경우 담임목

사 혼자 진행하는 경우가 58%로 가장 많았다. 새벽·주중예배는 부교역자와 돌아가며 진행하는 경우가 각각 55%와 52%로 담임목사 혼자 진행하는 경우를 앞섰다.

성경 활용률은 대예배보다 새벽·주중예배가 더 높았다. 대예배에서는 61%가 주제설교를 진행해 성경강해설교(29%)를 2배 이상 앞섰지만, 새벽예배에서는 성경강해설교를 하는 경우가 42%로 주제설교(24%)보다 많았다.

선교의 창 (146)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개척 선교사가 해야 할 3가지 일

예로부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이는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관중(管仲)이 한 말이다. “一年之計 莫如樹穀, 十年之計 莫如樹木, 終身之計(百年之計) 莫如樹人. 一樹一獲者穀也, 一樹十獲者木也, 一樹百獲者人也.” 그 뜻은, “1년의 계획으로는 곡식을 심는 것만 한 것이 없고, 10년 계획으로는 나무를 심는 것만 한 것이 없고, 평생의 계획으로는 사람을 기르는 일 만한 것이 없다. 한 번 심어 한 번 거두는 것이 곡식이고, 한 번 심어 열 번 거두는 것이 나무이며, 한 번 심어 백 번 거두는 것이 사람이다.”

모든 것이 꼬이기 마련이다.

1. 차세대 리더를 세우는 일

1세대 개척 선교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역은 무엇인가? “사람을 얻어, 사람을 길러, 사람을 남기는 일”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이다. 선교는 종말론적이면서도 다음 세대를 내다보는 혜안이 필요하다. 개척자는 당대보다 후대가 열매를 맺도록 사역적 기초를 놓아야 한다.

아무리 큰 프로젝트를 이루고 교회를 수없이 개척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쓰실 만한 일꾼을 남기지 못했다면 그 사역은 안개처럼 사라지기 쉽다.

한인 세계선교는 유감스럽게도 성과주의 땃에 걸려있다고 보아야 한다.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업적을 드러내기 좋아한다. 인재를 발굴하고 투자하며 리더로 세우는 데 인색하다. 왜 그러한가? 일꾼 양성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표시가 잘 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나 선교기관에서 후임자를 찾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자기가 일꾼을 키우지 않고 밖에서 찾으니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의 모델이신 예수님의

사역은 어떠했는가? 주님의 사역은 보편성과 특수성을 띠고 있다. 즉, 가난한 자, 귀신들린 자, 병든 자 등 가는 곳마다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군중들에게 천국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러나 핵심 사역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다. 주님께서 만일 제자양성을 하지 않고 대중 집회만 했다면 과연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났을까?

영혼구원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나 제자들은 인고의 세월 속에서 길러진다. 그러므로 개척 선교사는 가시적인 사역 결과를 드러내기 위해 너무 전전긍긍하지 말아야 한다. 주된 초점은 인재 발굴하고 그들을 일꾼으로 세우는 데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나아가 그 리더를 중심으로 영성공동체를 만들어 함께 전지하도록 해야 한다. 그

회개적 등이 주류를 이룬다. 한마디로 컴퓨터의 소프트웨어 같은 사역에 강조점을 둔다. 이러한 흐름은 나쁘지 않다. 어차피 센터는 내용을 담기 위한 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선순위에 밀린다 해도 사역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 틀을 무시할 수는 없다. 사역이 커질수록 센터의 필연성은 절실해진다.

현재 세계에서 구축되고 있는 한인 선교기지는 대다수가 매우 열악하다. 그 이유인즉, 마련하는 쪽에는 큰 재정이 소요됨으로 후원교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다. 또한 센터들이 연합적이지 못하고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하고 있는 것도 주된 원인이다. 이로써 한인 세계선교가 장기적으로 팽창하려면 하드웨어 격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전략적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 이 사역은 개척

가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 사람, 전통, 내규, 재정, 프로그램, 유행 등 여러 종류가 있다. 대체로 한인 공동체는 리더나 목소리 큰 사람들에 의해 움직인다. 비록 정관이 있지만 그 위에 사람이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최고 리더가 자리를 비우면 공동체는 크게 흔들리게 된다. 이에 새들백교회를 이끌고 있는 릭 워렌(Richard Duane Warren) 목사는 “교회가 건강하게 되려면 사람보다는 반드시 목적이 이끌어 가야 된다”고 말한다. 이러한 목적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효과적이어야 한다. 본질은 강하고 순결하게 지키되, 방법은 상황에 맞게 적용시켜야 한다.

서구인의 선교에 비해 한인 세계선교의 가장 큰 약점은 선교에 관한 매뉴얼이 많지 않다는 데 있다. 주로 행동이 앞서

그러면 후에 오는 선교사들이 시행착오를 덜할 뿐 아니라 선교의 속도감이 붙을 것이다. 따라서 매뉴얼은 개인이나 단체보다 하나님나라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개방적인 시각으로 다뤄져야 한다.

맺음 말

언어와 문화 등 모든 것이 다른 도양에 떨어진 개척 선교사는 마치 낙하산을 타고 적진에 뛰어든 특공대와 비슷하다. 불안하고 긴장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창조적인 사람들은 불안을 잘 견딜 뿐만 아니라 즐기는 자들이다. “불안은 창조의 시녀”라는 영국 시인 T. S. 엘리엇의 말처럼, 창조는 불안 없이 오지 않는다. 이에 저들은 자신의 과업을 이루기 위해 기존의 틀을 깨고 과감히 도전한다.

창조적 소수로서 하나님께서 택한 1세대 개척 선교사는 참으로 그 소임이 크다. 그가 해야 할 첫째 사역은 핵심 리더를 세우는 일이다. 둘째 사역은 장기적 안목으로 기밀 선교센터를 마련하는 일이다. 셋째 사역은 다음 세대가 응용할 수 있는 선교 매뉴얼을 만드는 일이다. 이 3가지 사역적 기초가 구축된다면 그 선교지는 시간이 갈수록 뒷심을 발휘할 수 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그 선교지는 결코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없다.

그러므로 개척선교사는 당대에 결과물을 창출하려는 유혹을 포기해야 한다. 다윗의 일이 있고 솔로몬의 일이 따로 있다는 말이다. 개척 선교사는 아쉬울 지라도 늘 마음으로 살며 백년지대계의 안목이 있어야 한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후세대들이 열매를 맺도록 등받이가 되어주어야 한다.

jrsong007@hanmail.net

롭이 아니고 혼자일 경우에는 쉽게 결길로 가기 때문이다.

2. 선교센터를 구축하는 일

속담에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바다”라는 말이 있다. 기밀 언덕이 없으면 황소도 힘을 쓸 수가 없다는 말이다. 컴퓨터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을 담는 하드웨어가 없을 때 컴퓨터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선교도 같은 이치이다. 장기적 안목으로 사역을 펼치기 위해서는 선교센터가 마련되어야 한다.

한인 세계선교는 대체로 보수적인 노선을 타고 있다. 전도, 제자훈련, 신학교 교육, 교

선교사가 풀어야 할 과제이다. 왜냐하면 세상 물기가 전정부지로 뛰기 때문이다.

초창기에 센터 건립을 위한 부지라도 마련해두었다면 장래를 기약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미 때를 놓쳐 손을 쓸 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개척 선교사는 현지에 도착한 때부터 선교기지 구축을 위한 부담을 안고 살아야 한다. 야전군 사령부처럼 선교센터는 장기적 계획 가운데 추진되 가능한 파송기관 또는 교단별로 선교사들이 연합적 프로젝트로 할 필요가 있다.

3. 선교 매뉴얼을 만드는 일

모든 단체나 교회는 무엇인

며 사역적 기록이 적고 또한 그것을 보편적 매뉴얼로 만드는 데 익숙하지 못하다. 설사 어떤 이들은 좋은 매뉴얼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나누거나 전승하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응용한 시각으로 자기 율타리에 갇혀 있는 함람미달의 리더들이 있는 한 우리 선교는 발전하기 힘들다.

선교는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요, 그 이상이다. 그러려면 비전, 목표, 전략, 정책, 제도, 과정, 방법 등 선교전반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며 그것을 매뉴얼(Manual)로 만들어야 한다. 이 과업이 개척 선교사에게 주어져 있다. 그에게는 길을 트고 그 노후를 다음세대에게 전승할 책임이 있다.



드라마 서신서 (6)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오늘은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로마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옥중서신의 배경

‘옥중서신’이라는 말은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비교적 자유로운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행28:16-31). 이때 기록한 서신서가 빌레몬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립보서입니다.

이니,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몬1:16-21). 나 바울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도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몬1:23-25).

골로새서의 내용

(골로새서는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낼 때, 빌레몬이 섬기고 있는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 골로새 교회에는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

다(골1:15-18).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이어주는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입니다(골1:20-29).

내가 들으니 교회 안에 헛된 철학과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행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길 바랍니다(골2:6-10). 이제는 할례가 아니라 세례입니다(골2:11-15). 금욕주의와 고행 등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골2:16-17). 또한 가시적인 겸손과 천사숭배 등을 붙들지 마십시오. 이런 것들은 거룩한 삶에 조금의 유익도 없습니다(골2:18-23).

(그러한 자의적 숭배와 고행이 아니라)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찾고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골3:1-4).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음란과 부정과 정욕과 탐심 등을 벗어 버리고 거룩의 모습인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인내와 사랑으

에베소서 내용

(에베소서는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연합과 통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론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내용은 골로새서와 유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된 나 바울은 에베소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엡1:1-2).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자녀’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나 바울은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에 감사하며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여러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엡1:15-23).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엡2:1-10).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질 하지 않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함을 버립니다. 대신 친절하고 용서합니다(엡4:17-32). 한마디로 사랑하며 거룩을 살아냅니다(엡5:1-14). (어디서요?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거룩을 살아합니다(엡5:22-6:4). (직장과 사회에서도) 종들이, 상전들이 거룩을 살아합니다(엡6:5-9).

(그 거룩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신감 주를 입어야 합니다.(엡6:10-20). 평안과 믿음과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엡6:21-24).

빌립보서의 내용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빌1:1-2). 나는 복음을 위하여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갇힘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다면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들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나와 같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빌1장).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은혜에 합당한 거룩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빌2장). 그 거룩의 삶은 행위자들과 할례파들을 삼가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자랑은 모두 배설물과 같은 것이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은 ‘의’를 붙잡고 궂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합니다(빌3장). 기뻐하고 또 기뻐하십시오(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4장).

다음 시간에는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딤후, 딤후)을 나눠보겠습니다. dsukim@gmail.com

옥중서신: 빌레몬서- ‘하나님아버지’ 와 ‘죄인된 인간’, ‘예수그리스도’ 의 사역 골로새서-기독론, 에베소서-교회론, 빌립보서-기쁨의 서신

인 거짓교사들과 영지주의를 표방하는 철학자들이 교회에 거짓된 사상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골로새서를 통해서 복음의 정수와 특별히 기독론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나 사도 바울은 형제 디모데와 함께 골로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골1:1-2). 에바브라를 통하여 들은 여러분의 믿음, 성도와 우리를 향한 사랑에 관한 소식에 인하여 감사합니다(골1:3-8).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시고,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생명을 주셨습니다(골1:13-14).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눈에 보여진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이시며, 교회의 머리이시니

로써 새 사람을 입습니다(골3:5-17). (어디서요? 먼저는 가정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이, 자녀들이, 부모들이 거룩의 옷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골3:18-21).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도) 종들이, 상전들이 거룩의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다(골3:22-4:1).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것은) 세월을 아끼고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골4:2-6). 두기고와 오네시모, 마가를 여러분들에게 보냅니다. 잘 영접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와 데마도 여러분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이 편지를 읽으신 후에는 라오디게아교회에도 회람해주시기 바랍니다(골4:7-16). 아킴보는 골로새교회를 충성스럽게 잘 섬겨주길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있기를 바랍니다(골4:17-18).

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었던 담을 자신의 몸으로 헐어버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가족(권속)이 되었습니다(엡2:11-22).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이방인들도 이 복음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상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엡3장).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여러분들은 사랑으로 용납하여 하나 되기에 힘쓰십시오. 몸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 모두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된 지체들입니다(엡4:1-16).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각 지체들과도 연합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사람은 거짓을 버리고, 도둑

코로나 팬더믹! 귀하의 교회는 안녕하십니까?

-COVID-19 이후 교회의 성장전략(하)



이희갑 목사 (Azusa Pacific University 교수)

향후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재 코로나사태로 우리 모두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것이다. 곧 우리는 언젠가 그랬던 듯이 정상적인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시간이 분명히 올 것이다. 교회도 다시 문을 열고 또 정상적으로 은혜로운 주일예배가 드려질 것이다.

그러나 막연하게 기다리기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새롭게 준비하고 미리 올바른 대처를 해야 한다. 교회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교회에서 다시 예배를 드리는 날, 우리는 교회에서 그동안 대면하지 못했던 성도님들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을까? 그러나 뭔가 어색하지 않을까?

아마도 성도님들의 교회에서 서로 인사하는 습관이 바뀌지 않을까? 예배 도중 교제하는 시간, 악수하거나 포옹하는 것을 꺼릴 것이다. 주일날 많이 모였던 예배보다는 덜 많이 모였던 예배를 더 선호하게 될지 모른다. 아니면 온라인예배에 익숙해져 아예 대면예배에 소홀하게 될 지도 모른다. 아마도 교회에서 예배 때마다 운행하는 버스를 교인들이 덜 선호하게 될 것이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들이 교회에 안심하게 돌아올 수 있을까? 사실 고령자들의 특별 관리의 현재 미국 교회의 주요 과제이다. 미국 교회의 경우 교회현금의 42%가 60세 이상의 고령자층에서 나온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다시 예배드리는 감격스러운 날 우리는 익숙히 보아왔던 성도들이 이미 떠나버린 안타까운 소식에 절망하게 될

지 모른다. 무엇을 우리는 준비해야 할까?

첫째, 양적 성장보다는 영성 발전을 위한 목회를 지향해야 한다.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 모임 활성화로 자칫 교회가 온라인이 전부인 양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생각이다. 온라인 예배는 자칫하면 예배를 설교 듣는 것으로 한정해버릴 위험이 다분히 있다. 특히 몇몇 교회의 온라인 예배는 수준 높은 테크놀로지의 매개로 콘텐츠보다는 스타일의 호기심과 관심을 끌게 되어 조회수가 높아지지만 영성 발달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영적 터치가 필요하다.

코로나 이후에는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성도들이 경험한 불안, 공포, 두려움을 치유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안

회구역을 나이, 성별을 중심으로 하는 것보다는 사람들의 필요성, 삶의 배경, 직업 등, 현실 삶과 관계있도록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코로나사태가 진정된다 해도 당분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모임을 갖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고 예배는 지금처럼 많은 숫자가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것보

고 일반 목회자나 교회 스텝들이게도 온라인 활동이 그들의 목회 업무에 적극 반영되도록 격려해야 한다.

교회 차원에서 온라인 소규모 그룹 성경모임, 온라인 상담, 온라인 부서모임, 온라인 선교활동에 이르기까지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특히 교회 홈페이지에 온라인 헌금과 도네이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려움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지만 앞으로의 교회는 규모보다는 영적으로 코로나사태는 분명 작은 교회들에게는 위기이다. 특히 소규모 교회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향후 교회의 운영에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소규모가 갖는 그만의 특징과 아름다움이 분명히 있다. 깊은 수준의 나눔과 영



양적성장보다 영성발전 위한 목회, 온라인예배 전문적 활용 작은 교회 장점 살리고, 삶에 실제도움 주는 방향으로 목회

에 거하게 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교회는 함께 하는 살아있는 유기체이며 성도들은 같은 지역교회 안에서 서로 공감하며 느끼며, 체험하며 영적 발전을 도모해 나가는 것이다. 소그룹 활동, 치유와 상담이 코로나 이후 교회의 매우 중요한 접근방법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교회가 가정, 상담, 자녀 교육, 육아, 노인 및 고령자, 저소득자, 지역사회에 있는 타 문화/인종 등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고 본다. 이를 위해 교

회는 주일 예배를 여러 번 드리게 해서 가급적 적당한 규모의 인원이 번갈아 교회를 방문하도록 계획하는 것을 Ministry Matter 잡지는 권고하고 있다 (4월28일자).

둘째, 코로나사태 때 요긴하게 활용했던 온라인(virtual) 예배는 보다 전문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 담당 목회자(digital minister)를 채용, 교회 성도들 및 지역사회, 나아가 선교지역까지 연계되도록 내용을 더욱 개발하게 하

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직접 헌금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온라인 헌금에 대한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

셋째, 코로나는 향후 작은 규모의 교회들에게 치명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헌금의 축소, 건물 운영비용의 증가뿐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교회 테크놀로지비용 등으로 어려움에 봉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국의 대형교회들도 코로나사태로 향후 소규모 교회의 어

려움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지만 앞으로의 교회는 규모보다는 영적으로 코로나사태는 분명 작은 교회들에게는 위기이다. 특히 소규모 교회들의 재정적인 어려움은 향후 교회의 운영에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기에 절대 포기하지 말자. 그렇다면 이 어려움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해답은

연합과 연대이다. 연합은 작은 교회들끼리 독립성을 유지해 가면서 공동으로 함께 대처하는 것을 말함이고, 연대는 특별한 프로젝트나 사업을 공동으로 함께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넷째, 코로나 이후의 교회는 보다 현실의 문제에 눈을 떠야 함을 의미한다. 코로나가 진정 되더라도 코로나가 잉태해온 문제들은 그대로 누적되어 있다. 높은 실업률로 인한 성도들의 삶의 궁핍, 직접적, 간접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주위 사람들, 중국에서 발병했기에 동양인들에게 가해지는 차별이나 불공정한 처우들, 아직도 필수적인 영양을 공급받지 못한 가난한 이웃들, 저소득층, 노인들, 우리의 2세대... 교회가 이들을 위해 적극 변호하고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제는 교회가 성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목회의 초점이 세워져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공공서들, 사회복지단체들, 교육기관들, 비영리기관들과 긴밀히 연계되어 일을 처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자부심을 갖자. 코로나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조국 대한민국이 세계를 리드하는 모델국가로 되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코로나는 지금까지 서양 위주의 세계관에서 동양과 대한민국에 대한 새로운 발견의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우리도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지만 우리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조국의 가치와 발전을 긍정적이고 자랑스럽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 한 인교회가 이 일에 더욱 앞장서야 한다.

맺는 말

분명한 것은 코로나사태는 곧 지나갈 것이라는 것이다. 환란은 지나간다. 그러나 환란이 지난 후 우리의 태도와 대처 방법에 대해 하나님은 분명히 물으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기대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마25:11) 코로나를 이겨낸 여러분을 통해 영광 받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hlee0414@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망양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0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0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08:00 금요철야: 오후 09:00 새벽기도회: 오전 05:45 Tel: (718)361-9199, www.moakyang.org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뉴욕부르클렌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02:00 수요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 오후 08:45 새벽기도: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584, www.fk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15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e@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 요 기도 회: 오후 8:30 새벽 기도 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9:30 영 아 예 배: 오전 10:45 수 요 예 배: 오후 8:00 금 요 성 경 공 부: 오후 8:3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주 일 학 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Flushing), (917)373-3411 46-04 162 St, #2,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cpcofny.org, Tel: (516)387-9940, 99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 (201)342-9194, sungdo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후 1:50 청년회: 오후 3:2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 오후 1:30 수 요 찬 양 모 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회: 오후 3:20분 주일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30분 Tel: (347)513-1351, cheongsu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교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성경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인 교회 담임목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석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영어로 보는 성경 (65)

English Bible

유상열 목사
(리빙스톤교회)



2 John 1:4-6

4) It has given me great joy to find some of your children walking in the truth, just as the Father commanded us, 5) And now, dear lady, I am not writing you a new command but one we have had from the beginning. I ask that we love one another. 6) And this is love: that we walk in obedience to his commands. As you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his command is that you walk in love.

(NIV 2011)

WORD & IDIOM

* command: 명령하다, 명령(n) * one another: 서로 * in obedience to ~: ~에 복종(순종)하여 * just as ~: ~ 한 그대로, 꼭 ~ 처럼

GRAMMAR

4) It has given me great joy to find some of your children walking in the truth, just as the Father commanded us.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 아버지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너의 자녀 중 얼마를 발견하는 것은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

* <to find some of your children ~>가 주어이지만 이 문장에서는 가주어 (it)를 앞에 놓고 문장을 완성한 후에 뒤에 놓았다. 즉 <그것이 나에게 큰 기쁨을 주었다>고 일단 말해놓고 여기서의 <그것>이 무엇인지를 뒤에서 <to부정사구>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walking in the truth>는 뒤에서 앞의 <some of your children>을 수식하는 현재분사구이다.

5) And now, dear lady, I am not writing you a new command but one we have had from the beginning.

(그런데) 그건 그렇고, 사랑하는 자매여, 나는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어왔던 것 처음부터 => 그건 그렇고, 사랑하는 자매여, 나는 새 계명을 너에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던 계명을 쓰고 있는 것이다.

* ①번 ()안에 (I am writing you)가 생략된 것으로 보면 이해하기 편하다. <one we have had>는 현재완료시제로써 과거의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쭉 가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one>과 <we>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것이다. <명사(N)+주어(S)+동사(V)>는 <주어가 동사하는 명사>로 해석하면 된다.

I ask that we love one another.

나는 부탁하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 나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간청한다.

* <I ask ~>는 ~을 요구하다, 청하다, 부탁하다는 의미를 가지며 ~ 다음에는 목적어 <을·를>에 해당하는 명사가 와야 한다. 좀 더 설명하자면, 전체 문장 안에서 하나의 문장이 주어, 보어, 목적어 등의 기능을 갖는 명사절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 문장 앞에 접속사 (that)을 넣으면 된다. 아래의 ③④번의 <that>도 같은 경우인데 해석은 <~라는 것, ~인 것, ~하는 것>등의 의미를 살리면 된다.

6) And this is love: that we walk in obedience to his commands.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에 대한 순종 안에서 사는 것이다.

As you have heard from the beginning,

네가 들어온 대로 처음부터

his command is that you walk in love.

그의 계명은 내가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 그리고 이것이 사랑이다: (즉) 우리가 그의 계명에 대한 순종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처음부터 네가 들어 온대로, 그의 계명은 내가 사랑 안에서 사는 것이다.

STUDY & THOUGH

■ 본문은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실천에 관한 내용으로 초대교회 당시 영지주의(Gnosticism)에 대해 경계할 것을 교훈하는 내용이다.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영지를 가지고 있는 자신들만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이며 사랑을 부르짖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떠난 방종을 일삼았던 자들이다. 요한은 이들의 삶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에 관한 바른 지식이나 말로만의 사랑이 아니라 계명을 준수할 것과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Before you say, "love each other" live a life of love.

livingstonech@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제자가 해야 할 일(막8:34)찬518장

그리스도의 제자인 그리스도인이 항상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아부인입니다. 자아극복이 아니고 자기중심에서 주님중심으로 바꾸는 삶이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자아가 육체의 소욕을 쉽게 따르기 때문입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다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말씀에 착념시켜야 합니다(롬8:5-6). 진리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자기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질 수 없으나 당면한 일에 만나는 모든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그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나가야 합니다. 셋째, 주를 쫓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 주되심을 믿고 나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닮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화 자기 목숨을 얻는 길(막8:35-38)찬456장

여기 목숨은 생명의 근원인 마음, 영혼을 가리킵니다. 이 영혼을 지키는 길은 그것을 둘러싼 자아 곧, 인간부패성인 옛사람이 죽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으로 이것을 해결하셨습니다(롬6:3,6). 첫째, 먼저 목숨의 소중성을 깨달아야 합니다(36-37). 천하와 바꿀 수 없는 소중성을 아는 것은 거듭날 때 옵니다. 성령의 조명이 아니면 무엇이 소중

한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망에서의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면, 부패성에서의 구원은 예수를 중시할 때 일어납니다. 둘째, 주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려야 합니다(35). 산제사로 자신을 드리는 헌신이 없다면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없습니다(롬12:1-2). 셋째,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릴 때 구원을 얻습니다(35-38). 복음 전도에 힘쓰는 삶이 진정한 구원을 줍니다.

수 베드로가 본 영광(막9:1-6)찬167장

높은 산에서의 세 제자의 경험은 현실과 영계가 연합하는 신비스러운 사실체입니다. 바울의 삼중천의 경험처럼 그가 몸 안에 있는 지 밖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고후 12:3). 이것을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주의 재림의 영광을 봄이라고 해석합니다(벧후1:16). 어떤 점에서 그러합니까? 첫째, 그리스도 모습이 세상의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3). 하나님

의 권위와 능력으로 채워진 영광입니다. 둘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그와 교제를 나누는 광경을 보았습니다(4). 시간과 공간이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룬 모습입니다. 셋째, 두려움으로 할 말을 잃을 정도로 황홀경에 빠졌습니다(5-6). 베드로의 이런 경험보다 성경의 세계를 본 자의 반응은 더 놀랍습니다(벧후1:19).

목 그의 말만을 들어야 한다(막9:7-13)찬500장

이 황홀경에 빠진 세 제자는 그들이 불멸 진정한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뿐임을 배웠습니다. 어떻게 그를 중심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 그리스도가 모든 일의 주인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8). 모든 일에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말만을 들어야 합니다(7). 그리스도의 주권이 인정되는 가장 실제적인 일

은 오직 성경 중심한 삶 곧 성경의존 사색으로만 일어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죽음을 중심해야 합니다(12-13). 변화산에서의 대화내용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뜻하는 것처럼(눅9:31) 모든 일을 구속 중심한 삶을 살아갈 때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더욱 더 이런 확신이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대안이기 때문입니다.

금 믿음의 위력(막9:14-29)찬343장

첫째,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의 온갖 수단으로 할 수 없는 불치의 병들을 치료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는 간구가 있는 곳에 주님은 친히 일하십니다. 둘째, 귀신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귀신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만 물려오는 싸움을 이깁니다. 오직 예수와 그

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한 신자는 초자연적인 일까지도 통제할 권한이 예수의 이름으로 주어집니다. 셋째, 이것은 기도로 표현됩니다(29).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듯이 기도할 때 말씀이 믿어지는 산 믿음이 생깁니다. 영적인 자유와 해방은 기도의 골방에서 일어납니다. 이 믿음으로 충만하십시오.

토 십자가의 길(막9:30-32)찬496장

제자들이 십자가의 길을 두려워함은 십자가의 영광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사건을 통해 말씀하신대로 그 왕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이것은 그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만이 구원을 이루심을 선포합니다(31). 유일한 구원의 길은 주님의 죽음을 내 것으로 믿는 것뿐입니다. 둘째, 신자가 따라야 할 본으로 보이셨습니다(32). 주님의 속

죄의 십자가를 질수 없지만 그는 십자가의 길을 걸도록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신자의 삶은 바로 이 좁은 길을 감으로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셋째, 그 후에 찾아오는 영광에 동참하게 하려는 것입니다(31). 그의 고난과 죽음을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하는 능력도 포함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라 내 몫의 십자가를 잘 견디어 나갑시다.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_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운반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프란시스코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뉴저지 809 Broad Ave, Ridgefield, NJ NJ: 뉴저지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인/터/뷰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신임 총회장 조문휘 목사 “정통개혁주의신학 사수, 확장, 계승하는데 최선”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제 44회 총회가 지난 5월 12일과 23일 미주내 한인교단 최초로 화상총회로 개최됐다(1면담 참조). 멕시코 칸쿤에서 열기로 한 총회는 코로나19 팬더믹으로 온라인상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됐다. 이번 총회에서 신임 총회장으로 선출된 조문휘 목사(뉴욕동노회, 온누리교회 담임)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제 44회 총회가 나아갈 계획과 비전 등에 대해 들어본다.

-미주내 한인교단 최초로 화상총회를 하신 소감

43회 총회에서 부총회장으로 선출됐는데, 당시 총대들이 뉴욕에서는 총회를 많이 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택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엔피어여행사와 의논해서 장소를 칸쿤으로 정하고 좋은 호텔을 찾아 준비를 했다.

특히 여느 총회보다 사모들 수가 100명이 넘는 정도로 호응을 받았다. 사모세미나도 3강의를 준비하고 목회자연장교육은 브라이언 채플 박사의 2강을 포함 총 4강의를 준비하는 등 강의록 준비와 음향까지 만반의 준비를 했다.

답사도 2회나 했고 총회단체 사진도 드론 동영상으로 준비하는 등 업그레이드된 총회 준비를 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모든 것이 허사가 된 셈이다. 그러나 준비위원회를 맡은 뉴욕동노회는 기도도 많이 하고 기쁘고 감사함으로 즐겁게 준비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 처음 화상회의를 생각했을

때 염려되는 부분도 있었지만 KCCC 동부책임자가 준비위원회에 있었는데 매주 1천명이 수업을 하고 예배도 드린다고 해 보자는 말에 힘을 얻어 추진하게 됐다. 사전에 모의회의, 모의예배, 모의투표를 연습했다. 다만 총회원끼리 친목 하는 시간이 없어 아쉬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 총회장님들의 덕담시간을 영상으로 받았다. 총회를 위해 적극 참여하고 지지해주신 총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총회 참석 비용은 최대한 리펀드 하려한다. 다행히 여행사의 도움으로 호텔 측에서도 최선을 다해 리펀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특히 사모들에게는 100% 환불해드리려 한다.

-신임 총회장으로 당선 소감

부족한 저를 이 소중하고 중요한 직분과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린다. 또 만장일치로 뽑아주신 총대들에게 감사한다. 이번 총회의 주제처럼 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이 “

조문휘 목사는 어머니의 서원기도로 태어났으며 외조부 방만준 목사는 방지일 목사의 조부가 된다. 조 목사는 고신대학교를 졸업하고 총신대에서 M.Div와 Th.M 학위를 받았으며 부전교회 부교역자로 사역, 예정함동에서 목사안수를 받았고 1990년 유학차 도미, 첫 설교지였던 뉴욕 업스테이트에서 개척교회를 시작해 제자훈련으로 부흥을 이뤘다. 조목업 사모와 사이에 1남1녀가 있다.



총회장 조문휘 목사

형제교단들과 공조, 선교동역으로 효과적 사역 군목지원, 신학교 적극 후원 양질 목회자 양성

은혜와 진리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충성하겠습니다.

-앞으로 총회를 이끌 방향과 비전

1. 먼저 총회가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사수, 확장, 계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 북미주개혁신학교단협의회(NARPARC)나 한국 형제 교단들과 공조하며 선교도 MOU를 맺어 동역함으로 인력 재력 낭비 없이 효과적 사역하려고 한다. 본 총회 산하 세계선교회 이

사들이 힘을 모아 본부장을 중심으로 선교사와 선교지, 선교사역이 활성화 되는 데 동역하도록 할 것이다. 이미 미국내 보수교단인 남침례교단과 선교네트워킹 공조가 돼 있어 선교사 보호 등이 이뤄지고 있다.

2. 총회 내 상임교육연구위원회를 중심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웨스트민스터 대, 소요리문답 번역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세 가지 신앙교육의 기초인데, 번역의 부족함 느껴오던 바 OPC(Orthodox Presbyterian Church) 총회에서 번역인정을 받아 현재 90%이상 번역됐다. 이것이 출판되면 우리 총회뿐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다.

3. 또한 우리 총회에는 군목이 31명이나 된다. 대령이 2명이고 현재 전쟁터에 있는 군목도 있다. 한인교단 중 가장 많고 자격 또한 우리 교단만 있다. 군목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이어 올해 예산도 2만 달러를 책정했다.

4. 신학교를 적극 후원함으로 양질의 목회자 양성을 하려 한

터부하는 형식으로 부담을 줄이고 지역도 동부 서부로 나눠 하려한다.

또 개혁주의 보수 신학을 지향하는 미국 신학교 고시 응시자 수를 늘려 교단의 미래가 더욱 발전해 가도록 한다. 이번 (recruit)모임에도 비브리컬 60명, 웨스트민스터 24명, 고든콘웰 8명 등이 참여했다.

5. 마지막으로 총회 실무적인 일들은 각 상비부와 상임분과의 전략적이고 지속적이며 효과적인 계획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돕겠다. 또 임원들과 함께 총대들의 지원과 지지 속에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미 31개 노회장들이 대화방에 들어와 있다. 각 노회장들과 대화하며 총회 일들이 잘 되도록 협력하겠다.

-평소 목회철학과 미주한인교회의 미래에 대해

교회 존재이유는 지상명령을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첫째,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을 전해서 영혼구원을 하고 둘째, 구원받은 성도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며 셋째, 그리스도 제자의 삶이 성령으로 충만해 권능을 받아 증인의 삶을 사는 것, 이 세 가지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며 사역의 초점을 맞춰 나가야 한다.

제자훈련 비전을 갖고 목회하고 있다. 미주한인교회가 현실적으로 이민자들이 줄고 요즘은 팬데믹 상태로 어려운데 교회의 본질, 핵심가치를 든든히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거저서와 같이 확장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거라는 꿈을 갖고 있다.

(유원정 기자)

건강 길라잡이



이영직
내과전문의

뇌졸중

조기 진단과 치료는 필수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무엇일까? 미국인들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심혈관 질환이고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사망원인은 암과 뇌졸중(중풍), 심혈관 질환이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국인의 흔한 사망 원인을 한국과 미국인의 중간쯤이라고 본다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을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로 추측할 수 있다.

-은퇴한 60대 후반의 남성 박 모씨는 아침에 일어난 후 갑자기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또 오른쪽 팔에 힘이 없어서

수저를 들 수 없었다. 가족들이 급히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도착했지만 박 씨는 의식을 잃고 호흡이 정지됐다. 응급실에서 심폐소생술을 받은 박씨는 뇌 단층 촬영 상 뇌출혈은 없었다. 따라서 박씨는 급성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혈전용해제를 주입받았다. 빠른 초기 치료 덕분에 박씨는 몇 주간의 재활 기간 후에 운동신경을 완전히 회복했다.

뇌졸중(stroke)은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중풍의 의학용어다. 크게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출혈성 뇌졸중과 뇌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허혈성 뇌졸중으로 나뉘어진다. 일반적으로 허혈성 뇌졸중이 전체의 80% 정도고 출혈성 뇌졸중은 20%로 허혈성 뇌졸중이 더 흔하다.

허혈성 뇌졸중을 예방하는 방법은 일차적으로 심장질환 예방과 마찬가지로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또 흡연을 하거나 심방세동과 같은 부정맥이 있는 경우는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미 중풍을 한번 앓은 경우는 두 번째 중풍이 올 위험이 더욱 높는데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중풍이 재발하는 것

을 40% 정도 예방할 수 있다.

뇌졸중이 의심될 때 손발이 따거나 우황청심환 등을 복용하는 것은 의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 아닐 뿐 아니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의식이 좋지 않은 중풍환자에게 기도를 막아서 흡인성 폐렴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두 번째 증례에서 보듯이 중풍의 80%를 차지하는 허혈성 뇌졸중은 발병 후 3시간 이내에 적절한 조치를 받으면 증상의 완전회복을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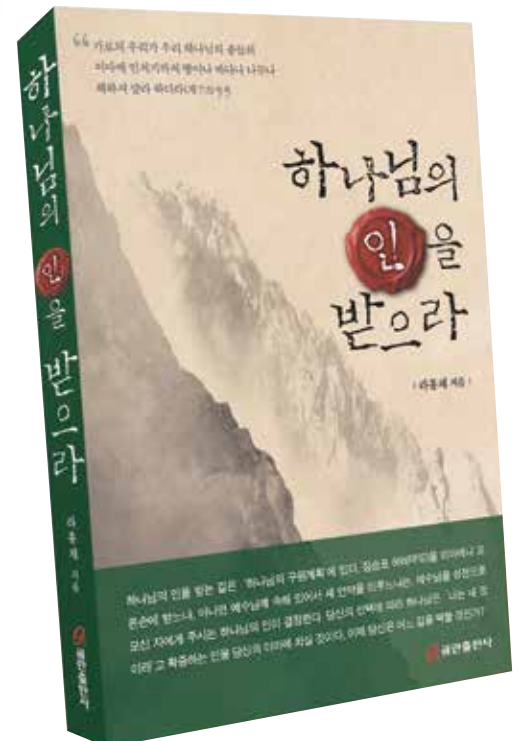
▲문의:213-383-9388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타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